www.goe.go.kr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 ver 2.0 (중등)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 ver 2.0

(중등)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목 차

들어가는 글 04

제1부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Ⅰ. 평화로운 학급공동체의 개념과 특징 08
1.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란? 08
2. 평화로운 학급공동체의 특징 10
3.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교사의 역할 12

Ⅱ.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의 구성 및 활용 14
1.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의 구성 14
2.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의 활용 15

제2부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

Ⅰ.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세우기 18
1. 서클이란? 19
2. 새 학기 서클 30
3. 존중의 약속 38
4. 느낌 찾기 45
5. 욕구 찾기 50
6.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 놀이 54

Ⅱ.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연결하기 63
1. 학급자치 서클 64
2. 듣고 싶지 않은 말 vs 듣고 싶은 말 71

3. 적극적 경청과 공감 75
4. 장점 찾기 82
5.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공동체 놀이 85
6. 학기말 서클 90

Ⅲ.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지키기 96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체 놀이 97
2. 문제해결 서클 100
3. 회복적 대화모임 106

제3부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실천 사례
1. 평화로운 삶을 가꾸는 백신교육공동체 성장이야기 118
2.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들이.. 126
3. 삶의 전환을 위한 걷기 학교 135

부록
1. 학부모 총회 서클 157
2. 교사 공감 서클 161
3. 교사 자치 서클 166

참고문헌 171
만든 사람들 172

들어가는 글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9월 15일 경기평화교육헌장을 선포하면서 학생의 생명존중의식과 평화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 감수성을 내면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그러나 학생을 중심으로 평화로워야 할 교육현장은 크고 작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 간, 교사와 관리자 간,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 간에 다양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갈등은 더 이상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상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갈등은 그 자체로 학생과 교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적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관계 단절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상황을 처리해야 할 '사건'이 아닌 회복되어야 할 '교육적 상황'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학교공동체의 기초 단위인 교실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소통과 이해로 극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학급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회복적생활교육, 비폭력대화 교육, 평화 감수성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급의 연간 교육활동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은 초·중·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바른 생활, 사회, 도덕, 즐거운 생활, 음악, 미술, 체육 등, 중·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사회, 도덕,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교과에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치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학급운영은 3월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실천되는 연간 교육활동으로 워크북의 '새 학기 서클, 존중의 약속 만들기, 학급자치 서클, 학기말 서클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급 및 학교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사를 위한 긴급 개입 서클, 문제해결 서클, 회복적 대화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급공동체를 넘어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사 서클, 학부모 서클 등'의 프로그램을 부록으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화 가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능력은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공동체 속에서 학습됩니다. 학생들은『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에 담겨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평화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며, 교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평화교육 실천모델로서의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부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Ⅰ. 평화로운 학급공동체의 개념과 특징

1.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란?
2. 평화로운 학급공동체의 특징
3.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교사의 역할

Ⅱ.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의 구성 및 활용

1.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의 구성
2.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의 활용

Ⅰ. 평화로운 학급공동체의 개념과 특징

1 |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란?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6). 그 사회적 공간의 범위를 '학교'로 규정했을 때 우리는 학교공동체라고 부른다. 즉 학교공동체는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가 학교교육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며 '우리 감정(we-feeling)'을 지닌 집단이다.

학교공동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강충열외, 2013). 하나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교육을 위한 공동체'의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공동체를 학교 구성원의 삶과 성장을 위한 '삶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삶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후자의 학교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혁신교육은 학교 구성원 상호 간의 배움과 돌봄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Noddings(1989)는 학교가 돌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교사를 자신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며,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돌봄을 실천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학교란 더 이상 배움만의 공간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보살핌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이다. 배움과 돌봄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공동체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타인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배움과 돌봄에 집중하는 학교이다(강충열외, 2013).

경기혁신교육은 혁신학교 운영모델의 한 축으로 존중과 배려의 교실문화, 안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윤리적 생활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윤리적 생활공동체는 지시와 통제, 경쟁과 변별, 불신과 무관심 속에 익숙한 학교문화를 존중과 배려의 신뢰관계로 회복하고 자율적인 규범으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상적 실천공동체이다(경기도교육청 2016). 교사의 윤리적 실천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 및 교사의 교육적 권위가 회복되고, 학급 구성원 스스로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 폭력 및 다양한 교실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하여 생활교육을 실천하는 평화로운 학급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란
학교공동체의 기초 단위로서
학급의 학생과 교사가 함께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생활교육 공동체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모른다'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쉽게 위로하지 않는 대신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다.

– 김연수, 「세계의 끝 여자 친구」 중에서 –

〈 6학년 3반 〉

쌀같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오곡밥 같은 6학년 3반
모두 모여야 완성되는 퍼즐처럼
모두 모여야 그림이 되는 퍼즐

25색을 가진 색연필
미술 재료 같은 우리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색연필
색연필 같은 우리 반

크레파스 같은 우리 반
운동 잘 할 것 같은 우리 반
로봇 같은 우리 반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햇빛같이 밝은 반
황금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별같은 6학년 3반

우사인볼트처럼 빠른 남학생들과
꽃처럼 이쁜 여학생들이
입에 넣은 껌처럼 끈끈한 우정을 지닌 6학년 3반

공기같이 꼭 필요한 소중한 6-3반 친구들!
지구 같은 우리 반
구름 같다

학교공동체가 돌봄의 공동체, 윤리적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들의 삶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자, 학생의 학교생활 중 가장 많은 생활공간을 차지하는 일상적인 교실부터 평화로운 학급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교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생활교육'**을 실천한다. 학교는 통제와 억압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성장하는 삶의 터전이다. 학생의 생활은 교정받기보다 교육으로 가꾸어야 한다. 처벌로 고통을 주기 위한 기존의 훈육중심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인격과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평화 감수성을 기반으로 회복적생활교육과 비폭력대화를 실천한다.

둘째,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평화 감수성 교육을 실천한다. 평화 감수성이란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차별, 배제를 인지하고 타인의 마음에 민감하게 공감하는 태도이다. 평화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바탕으로 학급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개인, 사회, 국가, 세계 및 자연과 조화롭고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평화 감수성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셋째,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하는 관계 중심의 회복적생활교육을 실천한다. 회복적생활교육은 자율적인 참여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학생이 긍정적인 변화를 선택하도록 이끈다. 회복적생활교육에서는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서클(circle)은 회복적생활교육의 실천 방법의 하나로 공동체를 연결하는 수평적이고 안전한 대화 공간이다.

넷째, 마음으로 주고받는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비폭력대화를 실천한다.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란 폭력이 없는 자연스러운 본성인 연민(compassionate)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학생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비폭력대화를 실천하며, '관찰-느낌-욕구-부탁'의 비폭력대화교육 모델을 활용하여 교실의 언어문화를 개선한다.

〈 우리 선생님이 좋은 이유 〉

최은숙, 공주 봉황중 교사

너희 선생님 아프시다
옆 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교실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오신 선생님은
솔직히 학교 오기 싫었다고 하신다.
배신자? 누군 오고 싶어서 오나?
선생님은 지각하는 아이들 무릎 꿇려 놓지 않는다.
선생님도 종종 지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졸면 책을 탁? 덮고 쿨 하게 5분을 재워 주신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빨리 주무신다.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 같지 않다
우리보다 쪼끔 더 알아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다
어떤 때는 모른다고 하신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가르쳐 드려야 한다.
선생님이 신기하다는 듯 오! 오! 하시면
우리 반엔 잘난 척이 퍼진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한테 '딱'이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전문성은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윤리적 행동을 포함한 학습자에 대한 헌신, 복잡하고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능력, 반성적인 실행, 총체적인 전문지식 등'의 특징을 포함한다(Ingersoll, 2003).

그중에서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헌신'은 학생의 학습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professional caring)으로 배움의 공동체와 돌봄의 공동체로서의 학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사의 전문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학급 구성원들 간의 차이와 갈등을 소통과 이해로 극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돌봄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생활교육이자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모델로서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사는 돌봄과 헌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학생의 지적, 정의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을 조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사는 자신의 직업을 단지 일로만 보지 않고 학생들을 돌보는 것에 헌신하는 소명(calling)으로 받아들인다(Kramer, 2003).

둘째, 교사는 학급의 크고 작은 갈등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수용하며, 그 갈등 자체가 갖는 교육적 가치를 인정한다. 즉 학급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갈등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갈등의 해결로 기대되는 학급공동체의 평화로운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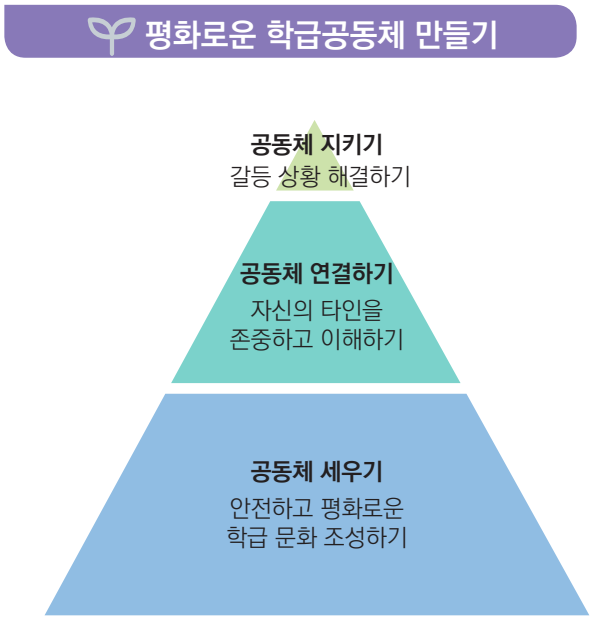
셋째, 교사는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포함한 학급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관계 맺음'에서 시작됨을 인식한다. 교사는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벌하고 비난하는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닌 조정과 화해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학급공동체의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 교사는 학급공동체의 평화로운 관계 맺기를 위하여 존중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의 물리적 환경으로는 학급 구성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제2부에서 소개되는) '원형 대화 구조(서클), 센터피스, 토킹피스, 느낌말 카드, 욕구 카드 등'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공감, 경청, 비폭력대화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평화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교사는 학생 개개인이 학급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요구를 인식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교육 방법을 실천하여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II.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의 구성 및 활용

1 |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의 구성



평화로운 학급은 하나의 기술이나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나 문화가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학교를 평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 세우기는 평화로운 문화 토양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학기 초에 시작되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교실현장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동체 연결하기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간에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작업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잘 이루어지면 갈등의 빈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지키기는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갈등을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의 활용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은 중·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급 구성원들과 함께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회복적생활교육, 비폭력대화, 평화감수성 함양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안내하오니, 학생 지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을 준비하며

- 이 프로그램은 담임교사 자율시간이나 담임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급 프로그램들입니다.
-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학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프로젝트'는 한 개의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학생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관심 있는 교사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함께 준비하고 논의할 때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2부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

Ⅰ.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세우기
1. 서클이란?
2. 새 학기 서클
3. 존중의 약속
4. 느낌 찾기
5. 욕구 찾기
6.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 놀이

Ⅱ.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연결하기
1. 학급자치 서클
2. 듣고 싶지 않은 말 vs 듣고 싶은 말
3. 적극적 경청과 공감
4. 장점 찾기
5.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공동체 놀이
6. 학기말 서클

Ⅲ.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지키기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체 놀이
2. 문제해결 서클
3. 회복적 대화모임

Ⅰ.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세우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급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기 초에 평화로운 학급문화가 생겨나면 갈등이 줄어들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화해를 이끌어 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세우기' 단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기 초에 활용하면 좋은 활동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활동명		이럴 때 사용해요
1	**서클이란?**	• 서클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소개
2	**새 학기 서클**	• 서클로 시작하는 첫 만남을 기획 할 때
3	**존중의 약속**	• 학년 초 존중의 학급문화 형성을 위한 약속을 만들 때
4	**느낌 찾기**	• 자신과 타인의 느낌과 욕구를 찾아가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5	**욕구 찾기**	
6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 놀이**	• 새 학기에 대한 긴장감을 풀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때

1. 서클이란?

서클이란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안전한 분위기에서 동그랗게 둘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방법입니다. 서클 안에서는 '토킹피스'를 갖은 사람만 발언권을 갖게 되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서클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분 없이 모든 참가자가 평등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평화로운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서클 준비하기

■ **동그랗게 둘러앉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위계가 없는 평등한 의사소통 구조를 상징한다.

■ **센터피스 (center piece)**

센터피스는 원의 중앙에 놓이는 바닥의 장식으로 서클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며, 참가자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돕는다.

■ **토킹피스 (talking piece)**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대화 상징물로서, 토킹피스를 가지고 있는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경청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참여자들이 모두 동등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흔히 토킹스틱이라고도 한다)

서클 진행하기

■ 환영 인사

■ 서클 열기

■ 센터피스와 토킹피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 일반적으로 센터피스는 자연물(화분, 꽃)이나 공동체에 의미 있는 사물이나 문구 등을 배치한다.
- 토킹피스는 주제와 어울리거나 공동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담긴 물건으로 사용한다.
  예) 연결을 의미하는 털실, 비폭력대화를 상징하는 기린인형 등

■ 서클의 목적 나누기

■ 서클의 약속 안내하기

- 토킹피스를 가진 사람만 이야기 할 수 있다.
- 자기 안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 한다.
- 이야기하기 원하지 않는 내용에는 침묵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서클에서 나눈 이야기는 비밀을 유지한다.

■ 여는 질문하기

- 주제 질문 전에 느낌을 나눌 수 있거나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질문을 통해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주제와 관련한 대화 나누기

-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열린 질문을 통해 서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 서클에 대한 소감 나누기

■ 서클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하기

■ 서클 닫기

일반적인 서클 시나리오

연번	내용	진행자 스크립트
1	**환영 인사**	안녕하세요? 교실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모두 마주하며 앉을 수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서클이라는 평화로운 대화모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	**서클 열기**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여러분을 침묵으로 초대 한 뒤 대화의 공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정도 침묵한다) [tip 음악, 시, 명상 등으로 시작해도 좋음]
3	**센터피스와 토킹피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서클은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안전한 분위기에서 동그랗게 둘러 앉아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방법입니다. 동그랗게 둘러 앉아 이야기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서로 모두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중심이나 주변부 없이 모두 평등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센터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센터피스는 원의 중앙에 놓이는 바닥의 장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도와줍니다. 지금 센터피스에 놓여있는 '허브'처럼 오늘 이 시간이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마음과 진심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토킹피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구로써, 토킹피스를 가지고 있는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토킹피스를 가진 사람만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약속을 잘 지켜주기를 바래요.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토킹피스는 '무지개공'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피곤함'이 아닌 '조화'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지개공으로 준비했습니다.
4	**서클의 목적 나누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　　)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진행자로서 이 자리가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서클의 약속 안내하기**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간단한 서클을 약속을 먼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킹피스를 가진 사람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자기 안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 합니다. • 이야기하기 원하지 않는 내용이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침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서클에서 나눈 이야기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연번	내용	진행자 스크립트
6	**여는 질문하기**	서클을 시작하는 첫 번째 질문은 (　　)입니다.
		〈질문 예시〉 Q1 : 나의 기분을 5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Q2 : 나의 기분을 날씨로 표현해 본다면? Q3 :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별칭이 있다면? (캐릭터, 동물 등등)
7	**주제와 관련한 대화 나누기**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조금 더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목적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몇 가지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　)분 이내로 발언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예시〉 (서클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질문 가능) Q1 : [자치서클] 우리반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가치는? Q2 : [공동체 놀이 서클] 이 활동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Q3 : [수업 서클] 이 수업에서 나의 마음에 가장 다가오는 부분은? Q4 : [문제해결 서클] 이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8	**서클에 대한 소감 나누기**	여러 가지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서클의 진행자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오늘 서클에 대한 소감이나 느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9	**서클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하기**	때로는 서클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줘서 고마워요.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10	**서클 마무리하기**	우리는 서클이라는 공간을 통해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보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더 잔잔하게 남기를 바라며, 잠시 침묵으로 함께한 후 서클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후 마무리)

읽기 자료

학교 안에서 서클이 갖는 힘과 도전[1)]

학교는 매우 강도 높고 역동적인 조직이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구성원들의 협력의 질이 학교의 성패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 서클은 집단 내부의 연결과 이해 그리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매우 구조적인 의도된 공간이다. 서클은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상호협력의 방법들 예를 들면 관계 만들기, 공유된 약속 정하기, 난관 극복하기와 같은 방법들을 고안해내고자 할 때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 서클이 공동체의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개인의 필요와 집단의 필요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잡아준다.

서클을 자주 실천하면 할수록 서클에 내재된 철학과 가치가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학교 안에서 정기적으로 서클을 실천할 때 단지 관계 세우기나 갈등해결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방식을 함께 경험하고 실천하게 된다.

서클은 단지 둥글게 의자를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클에서 실천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존중 **서클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며, 각 개인의 목소리는 구성원들의 집중력 속에서 경청된다.**

→ 서클에서 모든 사람의 견해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존중된다.

평등 서클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큰 권리와 힘을 갖지 않는다.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동등한 서클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 서클에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기대치는 동일하다.

공감과 감성능력 서클에서 우리는 공감능력-타인들과 연결되고 반영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개발할 수 있다.

1) 캐롤린 보이스-왓슨, 케이 프라니스 저, 이병주, 안은경 역(2018), 서클로 나아가기, 대장간, 53~54쪽.

→ 서클에서 자신의 느낌을 성찰하고 그 느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평범한 대화들보다 더 크게 주어진다.

문제해결 서클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대안을 갖고 있으며 참가자들 모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신념이 실천으로 옮겨진다.

→ 우리 모두는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도 집단의 지성으로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클에 임한다.

책임감 서클은 말과 행동 모두로 책임지기를 배우는 공간이다. 서클의 물리적 구조는 비언어적인 형태의 책임지기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 아무도 탁자 뒤에 숨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타인의 등 뒤에 있지 않다.

자기통제와 자의식 서클의 참가자들은 말하기 위해 기다려야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들으며,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흔한 일상적 말하기 방식이 아니다. 서클에서는 상당한 자기 훈련이 요구된다.

→ 모든 참가자들은 서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통제를 배우게 된다.

공유된 리더십 서클은 서로 다른 것들끼리의 만남을 수용하고, 다양한 관점이 표출되는 공간을 지켜내고, 다양한 진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서클에서는 누구나 리더가 되고 모두가 서클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 서클에서는 참가자 모두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모든 관심사들이 존엄하게 다뤄져야 한다.

참고 자료

서클을 시작하는 '여는 의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여는 의식'은 바쁘게 움직이던 몸과 마음을 서클로 가져오고, 서클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이 서클로 초대될 수 있도록 진행자가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명상으로 시작하는 서클[2)]

진행 과정

① 여러 가지 스트레칭 체조에 대해 선생님들이 먼저 익혀두어야 한다.
② 공간에 따라 의자 위에 앉아서 할 것인지, 책상 옆으로 나와 서서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체조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명상은 호흡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몸의 모양을 변형시킬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④ 몸을 스트레칭 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 각각 자신의 신체에서 혈액의 흐름과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멘트를 중간중간 넣어주도록 한다.

진행자 멘트

- 모두 편안하게 눈을 감아 보세요.
- 두 손을 살짝 깍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 내 가슴 속에 있던 미움덩어리 하나를 끄집어 내 보세요.
- 미움이 심장에서 나와서 내 팔을 타고 손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제 깍지 끼고 있던 손을 세차게 풀어버리며 미움을 밖으로 던져버리세요.
- 다시 깍지를 낀 팔을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덟을 셀 때까지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가슴 속에 더 이상 미움이 못 차지하도록 숨을 채워 넣어보세요.
- 하나 ~ 여덟까지 센 후 이제 숨을 천천히 내 쉬어 보세요.
- 여러분들 마음속이 깨끗함으로 가득 채워졌네요. 천천히 눈을 떠 주세요.

2) 경기도교육청(2014),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2014.

시(詩)로 시작하는 서클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너의 하늘을 보아

박노해

네가 자꾸 쓰러지는것은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을 잃어 버린 것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피워 낼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네 마음의 가장 깊은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 고마워

러블리벗(작사·작곡 러블리벗)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몇 번을 말해도 또 고마워
헤퍼서 이젠 네게
아무 느낌 없어도
그 말 대신 나 할 수 있는 말

고마워 내 삶에 와줘서
고마워 내 노래가 돼줘서
니가 아니면 몰랐던 사랑
그게 너여서 고마워

– 중략 –

♬ 단짝

소녀시대(작사 휘성/
작곡 Carsten Lindberg, Joachim Svares)

어제 작은 다툼에도 오늘 웃고
안아주고 감싸주기 자 서로 약속
(You are my best friend)
그저 흔한 고민에도 괜히 혼자
참지 말고 말해주기 한번만 더 약속

난 네가 웃을 때면 나도 행복해 (정말)
난 네가 슬플 때면 내 두 눈도 젖는 걸

*이 세상 하나뿐인 MY FRIEND 나의 기쁨 나의 영혼
그런 소중함을 지켜갈게 하늘에 영원히 맹세해 사랑해 친구야

- 중략 -

2. 새 학기 서클

새 학기 서클이란 학생들과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 학기의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똑똑 마음열기

■ **물리적 환경 구축 : 책상을 빼고 의자만 동그랗게 하여 앉기**
처음으로 서클을 만드는 경우 교사의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
('타원이 아닌 '원'이 될 수 있도록)

동학년 교사 서클

학급 서클

■ **센터피스 구축과 토킹피스 준비 : 진행자가 주제에 맞게 준비**

■ **공동체 놀이** 간단한 공동체 놀이를 통한 긴장감 풀기 (6.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놀이 참조 p.54)

콩콩 활동하기

새 학기 서클

■ 준비물 : 센터피스, 토킹피스

■ 소요시간 : 45분

■ 진행 과정

연번	내용	진행자 스크립트
1	환영 인사	(센터피스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축하고 음악을 틀어주어 친구들이 모두 올 때까지 편안한 마음과 서클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반을 만들어 갈 ○○○입니다.
2	서클 열기	원으로 앉아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이야기와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같은 거리에 앉아있고, 모두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앉아있습니다. 서클은 모두가 같은 거리에 공평하게 앉아서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듣는 대화 방법으로 아주 오래된 인류의 이야기 방법입니다.
3	토킹피스, 서클의 약속 안내하기	서클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물은 토킹피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해 온 토킹피스는 (　　)입니다. (토킹피스의 의미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이것을 들고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다른 사람들은 토킹피스를 든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이제 간단히 서클의 대화에서 필요한 약속을 알려드릴게요. ·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 합니다. · 토킹피스를 가진 사람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친구가 이야기 할 때는 경청합니다. · 서클에서 나눈 이야기는 다른 곳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 서클에 초대되면 끝까지 함께 합니다. · 침묵으로 참여하는 것도 존중해 줍니다. (패스 가능)
4	여는 질문하기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누구든 일등으로 간 사람에게 과일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류학자가 왜 손을 잡고 달려가냐고 묻자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내가 기쁠 수 있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아프리카어로 '우분투(UBUNTU)'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O반 O반이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바라는 볼 수 있는 평화롭고 따뜻한 학급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내용	진행자 스크립트
		〈소개 예시〉 [이름&좋아하는 것 활용] 첫 번째 사람은 '저는 ○○○을 좋아하는 △△입니다.'라고 소개하고, 두 번째 사람부터는 '저는 ○○○을 좋아하는 △△옆에 앉은 ○○○을 좋아 하는 ◊◊◊입니다'라고 소개한다. [느낌 카드나 그림카드 활용] 느낌 카드나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저는 ○○○이고 지금 제 느낌은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가 먼저 소개합니다. 교사의 소개하는 말하기 패턴은 이후에 학생들의 소개의 패턴이 되기도 합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패턴을 고려한 후에 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친해지기 위한 공동체 놀이하기**	놀이로 이름 익히기 〈활동 방법〉 [인형 활용] 한명이 인형을 들고 친구에게 던지면서 말한다. "안녕, ○○아" ○○이는 인형을 받아서 "나도 반가워 ◇◇아" 다른 친구에게 다시 인형은 전해주면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 [스탑워치 활용] 옆 친구 이름을 순서대로 외치면서 초를 잰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옆옆 친구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치면서 초를 재워서 목표한 시간에 도달하도록 한다. (활동 후 '전체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등의 도전 게임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6	**주제와 관련한 대화 나누기**	이제 우리가 함께 생활하기 위한 멋진 학급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　　)입니다. 〈주제 질문 예시〉 Q1 : 내가 행복했거나, 힘들었던 반은 어떤 모습의 반이였나요? Q2 : 내가 바라는 우리 반은 어떤 반인가? Q3 : 내가 바라는 우리 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제 활동 예시〉 ·서클 가운데 전지를 배치하고 나무를 그려둡니다. ·서클의 대화를 마무리 하고 내가 바라는 우리반의 모습이나, 이를 위해 내가할 수 있는 일을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나무에 붙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 반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우리 반을 위한 나의 약속이 만들어집니다.

연번	내용	진행자 스크립트
7	**서클에 대한 소감 나누기**	오늘 서클에 대한 소감이나 느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섯 글자로 말해볼게요. 다섯 글자로 말하면서 옆 친구의 손을 잡아 모두가 말한 뒤 원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8	**마무리하기**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반가웠고 이렇게 같이 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올 한해 행복한 우리 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올 한해 우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곰곰 돌아보기

■ **서클에서 나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마련한다.**

- 교실에 서클 관련 게시판 마련, SNS를 활용한 서클 공간 마련

Q&A 새 학기 서클 Q&A

Q. 새 학기 서클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인가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솔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새 학기 서클은 학생들에게 아직은 안전하지 못한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서클을 이어 나간다면 아이들은 서클의 의사소통 구조에 적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점차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Q. 학급에서 서클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원은 적절한가요?

서클 적정 참여인원은 20명 이내입니다. 대부분 학급 단위로 서클을 실시하는 경우 인원이 3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한다면, 학급 단위의 서클의 질문은 인원이 많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서

클 인원이 많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경청도 힘듭니다. 인원에 맞는 서클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새 학기 서클에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깊이 있는 질문보다는 서로 알아가면서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서클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서클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학생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클에 있어서 참가자의 참여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급 서클의 경우 서클의 대화를 원치 않거나 어려워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클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학생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것은 교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서클의 의사소통 구조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클을 경험한 아이들이 서클로 대화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도록 새 학기 서클을 매력적으로 준비해 봅시다.

Q. 서클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서클은 자신이 안전한 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며 그것이 허락되는 편안한 공간이여야 합니다.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순간, 서클에서 모든 아이들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치를 인정하며, 모든 학생들이 진심을 담아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접어둡시다.

참고 자료

담임교사 편지 예시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학부모님의 자녀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게 된 0학년0반 담임 000입니다.

올 해 아이들을 맞이하며 저는 당연하지만 교실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이 아니라 문제 상황이 발생한 학급공동체를 치료하는 걸음이 바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학급 분위기가 평화로울 때 학생들은 경계를 풀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평안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아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급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면서 학급공동체를 통해 친구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좋고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회복적생활교육'이라는 방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복적생활교육은 처벌위주의 응보적 생활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에 관심을 갖고 학급의 크고 작은 갈등을 소통, 책임, 참여의 방식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생활지도의 새로운 접근방법입니다.

회복적생활교육의 원리는
첫째, 잘못의 처벌보다는 피해의 회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둘째, 잘못을 자발적으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잘못한 학생의 회복과 성장에 관심을 갖습니다.
셋째, 갈등의 해결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가 중심이 되어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하며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 소통, 나눔, 배려를 통해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형성해야 하고 학급 구성원들이 평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마음속에 평화의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갈등은 회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이러한 노력을 할 때 평화로운 학급공동체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바라며 시도하는 저희 학급공동체의 작은 노력이 “나”를 넘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고 “우리”가 되어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노력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늘 부모님과 상의하면서 아이들의 성숙을 돕고 싶습니다. 학교의 문턱을 높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에 관하여 의논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함께 고민하여 맑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급 운영 계획 안내 예시〉

월	활동	비고
3월	• 1학기 학기 초 서클 (서클 안내, 소개하기) • 1학기 학급의 약속정하기 • 학급 임원 선출하기 (1인 1역할 정하기) • 학부모 총회 (학부모 서클) • 3월 생일파티 (케이크)	지속적인 경청과 비폭력대화 연습 갈등 발생시 문제해결 서클이나 회복적 대화모임 실행
4월	• 학급자치 서클 (단합대회 계획) • 단합대회 : 서로 알아가는 공동체 놀이 활동 • 4월 생일파티 (주먹밥 만들기)	
5월	• 학급 자치 서클 (1학기 학급 체험활동 관련) • 1학기 학급 체험활동 & 5월 생일파티 (미정) • 학급 자치 서클 (1학기 학급 체험활동 평가)	
6월	• 학급의 약속 성찰하기 • 6월 생일파티 (샌드위치 만들기)	
7월	• 1학기 학기말 서클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과) • 7월 생일파티 (화채 만들기)	
8월	• 2학기 학기 초 서클 (여름방학 이야기 나누기, 2학기 학급 계획 수립) • 2학기 학급의 약속 정하기 • 학급 임원 선출하기 (1인 1역할 정하기) • 8월 생일파티 (눈꽃빙수 만들기)	
9월	• 학급자치 서클 (단합대회 계획) • 단합대회 : 따뜻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공동체 놀이 활동 & 9월 생일파티 (미정)	
10월	• 학급자치 서클 (체육대회 목표 정하기, 체육대회 계획) • 체육대회 • 학급자치 서클 (체육대회에 대한 생각 나누기) • 10월 생일파티 (카나페 만들기)	
11월	• 학급의 약속 성찰하기 • 11월 생일파티 (치킨)	
12월	• 학급 자치 서클 (연말 파티 계획) • 12월 생일파티 & 연말 파티 (미정)	
2월	• 송별회 서클 • 1,2월 생일파티 (미정)	

2016.3.2. 담임교사 000올림

Tip

- **학급 행사로 넣기 부담스러운 교사는 학교 행사를 넣는 것도 좋다.**
- **연간 학급 운영 계획을 미리 세워 새 학년을 준비 하는 것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존중의 약속

공동체의 시작은 '처음'이라는 '낯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처음의 낯설음을 함께 나누면 '익숙함'이 됩니다. 존중의 약속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익숙함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길잡이 별'이 될 것입니다.

똑똑 마음열기

■ 존중의 약속의 필요성 안내

- 존중의 약속은 학교와 학급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구성원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지켜가면서 '자발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 존중의 약속 활용 예

-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등
- 특별실 사용 시 우리의 약속, 우리와 교실 환경, 우리와 마을 등

콩콩 활동하기

학급 규칙 만들기

■ 준비물 : 포스트잇, 매직펜, 전지1/2사이즈 종이, 스티커(투표용)

■ 시간 : 90분(탄력적 운영 가능)

■ 공간 : 구성원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

■ 진행 과정

① 학생들에게 존중의 약속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한다.

- 존중의 약속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을 주는 등의 행위로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반 구성원들 모두가 원하는 학급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원하는 것, 지켜야 할 것들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약속을 정하고 스스로 지키고자 합니다. 존중의 약속을 통해 우리 학

급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② 진행자는 학급규칙을 만들기 위한 질문을 제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 여러분은 선생님이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나요?
- 친구들이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나요?
- 선생님은 학생들이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할까요?
-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나요?

③ 모둠별(4~5명)로 학급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생각나는 대로 포스트잇에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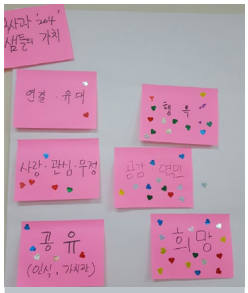
- 가치 목록(참고자료 참조)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다.
-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의 가치를 적는다.
- 1인 당 여러 개의 가치를 적을 수 있다.

④ 모둠원들이 협력하여 모둠에서 나온 가치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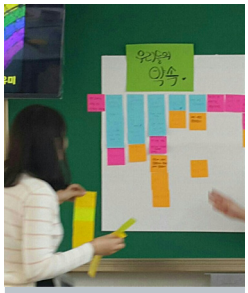
⑤ 비슷한 것끼리 묶은(유목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약속 문장을 만든다.

⑥ 모둠별로 만든 약속 문장들을 게시하여 전체 구성원이 나눈 뒤 투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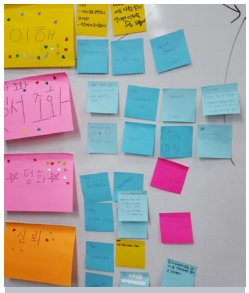
- 투표할 때 1인당 2~3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포스트잇에 가치적기



유목화 하기


약속 문장 만들기

투표하기

⑦ 소수의 의견에 대해 다시 한 번 발언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해 토의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 동의된 약속 문장 4~5개를 학급 존중의 약속으로 정한다.

- 교사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모두 동의제[3] 방식을 통해 소수의 의견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모두동의제'는 공동체가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를 포함한 '만장일치제'와는 달리 공동체와 개인의 무게는 같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서클 운영 시 소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 재차 토론하고 협의하여 소수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수용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합의 내용에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는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 소수의

학생들이 소수의 의견에 대해 토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세우기를 경험할 수 있다.

존중의 약속 예시

-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말 건네기
-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듣기
- 친하지 않은 친구와도 대화하기
- 갈등이 일어났을 때 회복적 서클 열기
- 모둠에서나 학급에서 한 가지 활동을 할 때 모두 동참하기

⑧ 정해진 존중의 약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모둠 토의와 전체 토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

-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 친구의 말을 먼저 듣는다.
  - 학급회의, 수업 중 친구의 발표에 대해 야유를 보내지 않는다.

⑨ 서명란을 만들어 학급 구성원 모두 서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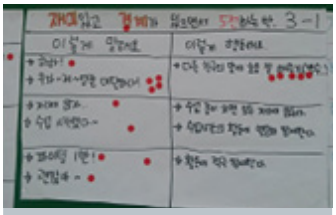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에 경청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누구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일 끝까지 합의될 수 없다는 것이 우려된다면 'N-2원칙'을 활용한다.

※〈 N-2원칙 〉
소수자의 의견을 듣고 다시 투표하기가 진행될 때 나온 결과가 반대의견 2명 이내일 경우 전체의 동의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인원수에 따라 'N-?'으로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활동 사진

모둠별 협의

투표하기


투표결과

곰곰 돌아보기

존중의 약속을 학급에 게시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기 초에 만들어진 약속에 대해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학급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학급 서클을 통해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잘 지켜지는 약속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수정하고 보완한다.

- **준비물 : 학기 초 작성된 존중의 약속 내용**
- **시간 : 45분(필요시 탄력적 운영 가능)**
- **진행 과정**

① 동그랗게 모여 앉는다.
② 존중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 부분을 격려하고 우리 학급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③ 존중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그로 인해 우리 학급에 발생되는 현상들과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나눈다.
④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⑤ 존중의 약속을 수정, 보완한다.

한걸음 더

① 존중의 약속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동체에는 나에게 호의적이며 친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수업시간을 포함하여 점심시간, 쉬는 시간, 청소 시간, 야외 활동 시간 등 많은 교육활동 시간에 학생들은 크고 작은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대부분의 경우 어려움을 그냥 참아 내거나, 뒤에서 불평하거나, 선생님에게 고충을 이야기 합니다. 존중의 약속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지시나 처벌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비난 없이 듣고, 이에 공감하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자율적인 약속이 만들어 질 수 있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② 존중의 약속을 제안할 때 주의할 점 안내하기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겨냥하여 비난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경우 약속 정하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상처 받는 학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난을 들은 학생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큰 비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사건으로부터 받은 느낌이나 영향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이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질 경우, 약속을 지키는 것이 흐지부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와 같은 약속은 좋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끼어들지 않고 기다렸다가 말하기'와 같이 구체적인 약속이 효과적입니다. 진행자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존중의 약속 Q&A

Q. 존중의 약속 세우기에서 '아침에 지각하면 일주일 청소'라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침에 지각하면 일주일 청소'는 응보적인 방법입니다. 지각을 자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클을 통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합니다. 이 외에도 존중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급 서클을 진행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원인부터 차근차근 파악하며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약속 이행에 대한 점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약속 이행 점검일은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합니다. 다만 약속이 잘 지켜질 때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는 것보다 바람직합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점검을 하면 질책처럼 느껴지는 것에 비해, 약속이 잘 지켜질 때 점검을 하면 칭찬이 되고 잘 지키고 있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약속도 '성장'의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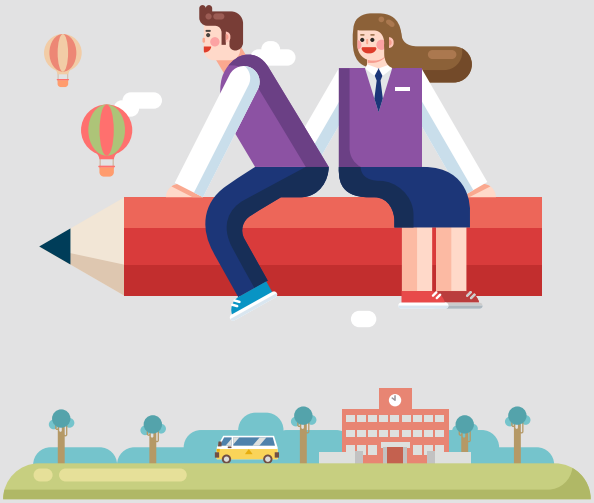
Q. 존중의 약속 세우기 시간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존중의 약속을 세우는 시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적절합니다. 학생들이 교실의 삶을 살아본 후에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자율시간 등을 이 시기에 2시간 정도 배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가치목록 예시(회복적 정의 생활교육 실천을 위한 가치카드 목록)[4)]

감사, 평등, 정의, 용서, 화해, 도움, 안심, 겸손, 배려, 나눔, 자기표현, 존중, 사과, 감동, 변화, 경청, 재미, 깨달음, 양보, 공감, 협동, 소속감, 진심, 공유, 개성, 휴식, 기대, 규칙, 공동체, 자부심, 이해, 희망, 노력, 실천, 소통, 수용, 자존감, 발전, 만족, 행복, 인권, 성장, 일관성, 사랑, 정직, 안전, 여유, 공존, 창조성, 성실, 진심, 인정, 솔직함, 격려, 성취, 권한, 자유, 편안함, 친밀함, 공정, 약속, 책임, 배움, 우정, 신뢰, 관계, 질서, 건강, 선택, 자율성, 호기심



4) 에듀피스, '회복적 정의 생활교육 실천을 위한 가치카드'

4. 느낌 찾기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서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다른 사람과 원만하고 부드러운 유대관계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말을 들어도 모두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느낌말에 친숙해지도록 합니다.

똑똑 마음열기

■ 왜 느낌 표현이 중요할까?

- 다음의 시를 학생들에게 읽어 준다.

poison tree

윌리엄 블레이크

친구에게 화가 났다.
화가 났다고 말하니
화가 사라졌다.
원수에게 화가 났다.
화가 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화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 중략 –

- 시를 읽고 난 학생들의 느낌이나 생각을 질문한다.

Tip

- 학생들이 이 시를 통해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안내한다.
- 느낌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느낌의 강도가 달라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콩콩 활동하기

느낌 맞추기

■ 소요시간 : 5~10분

■ 진행 과정

① 진행자가 학생들에게 아래의 예시와 같은 상황을 제시한다.

〈상황1〉 친구가 나 때문에 짜증난다고 말했다.

〈상황2〉 이번 수학시험의 점수가 50점이다.

〈상황3〉 오늘 비가 와서 축구게임이 취소되었다.

〈상황4〉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한 시간보다 30분이 지났는데 오지 않으셨다.

② 10명 이상의 학생에게 각각의 상황에서의 느낌을 말하도록 인터뷰한다.

③ 같은 상황이지만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Tip

- 진행자는 각각의 상황에서 학생들의 느낌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터뷰를 진행한다.
- 진행자는 학생의 다양한 느낌을 들어보고 같은 상황이라도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은 각자 그 순간의 욕구(중요한 것, 필요한 것)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상황4〉에서 엄마의 안전이 중요한 학생은 두려운 느낌이고 친구랑 더 놀고 싶은 학생은 신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진행자에게 도움이 되는 동영상 자료 : CBS 세바시 545회 "내 감정을 책임질 때 찾아오는 자유" @박재연 Re+리플러스 대표 편 〈http://www.cbs.co.kr/tv/pgm/cbs15min/〉

느낌말 빙고게임

■ 준비물 : 빙고판(4×4), 느낌말 목록

■ 소요시간 : 5~10분

■ 진행 과정

① 모둠별로 학생들이 느낌말이라고 생각되는 단어 16개를 빙고판에 채운다.

- 느낌말을 쓰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느낌말 목록을 제시해 주고 골라 쓰도록 한다.

② 한 모둠씩 돌아가며 자기 모둠에 쓰여 있는 느낌말을 하나씩 말하고 빙고판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면 지운다.

③ 돌아가면서 계속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 어떤 방향이든지 세 줄이 다 지워지면 '빙고'를 외친다.

Tip

- 학생들이 쓴 느낌말 중에서 느낌이 아니고 생각에 해당되는 말은 구분해 준다.
  예를 들어 '무시당한 느낌'은 느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실제로 느낌이 아니라 무시당했다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 **느낌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느낌이 아닌 것들**
  강요당한, 버림받은, 이용당하는, 거절당한, 오해받은, 인정받지 못하는, 공격당한, 위협당하는, 조종당하는, 궁지에 몰린, 의심받은, 학대받은, 따돌림 당하는, 무시당한, 협박당하는

느낌말 맞추기

■ 준비물 : 느낌말 카드 30~40장 (또는 느낌말을 크게 적은 스케치북)

■ 소요시간 : 10~15분

■ 진행 과정

① 활동에 참여할 대표학생 2인 1조와 느낌말 카드를 넘겨줄 도우미 학생을 뽑는다.

② 한 학생이 느낌말 카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학생은 그 느낌말을 맞춘다.

- 설명이 어려운 느낌말은 패스할 수도 있다.
- 3분 정도 제한된 시간을 주기도 하고 10개를 모두 맞출 때까지 계속하기도 한다.
- 같은 느낌이어도 느끼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활동으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다른 조 학생들도 앞으로 나와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활동 사진

곰곰 돌아보기

■ 서클로 성찰하기

- 상황에 따라 모둠으로 서클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활동을 끝낸 지금의 느낌은 어떤가요?
  - 느낌을 표현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 느낌을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볼까요?

Q&A 느낌 찾기 Q&A

Q. 느낌말로 혼동하기 쉬운 느낌이 아닌 말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면?

느낌말 표현을 나 전달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느낌말들은 자신의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닫는 기운이나 감정을 담고 있지만 혼동하기 쉬운 말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느낌을 감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들을 보다 풀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요당한 느낌'이라는 표현은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함'과 화난/두려운/부담스러운 등의 '느낌말'로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Q. 평소에 느낌말을 연습하는 방법은?

자신의 내면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과 다른 이가 전달하는 느낌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는 단순한 호불호의 표현 대신 '기쁜, 슬픈, 화난, 두려운, 놀란' 정도의 간단한 느낌말부터 점점 다양한 느낌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느낌을 찾도록 이끄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느낌말 어휘를 교실에 게시하고 교사가 일상에서 다양한 느낌말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학생과 대화중에 자신의 느낌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평소에 말하기, 글쓰기를 통하여 느낌말 어휘를 확장해가도록 꾸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느낌말 목록[5)]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감동받은, 뭉클한, 감격스런, 벅찬, 환희에 찬, 황홀한, 충만한, 고마운, 감사한, 즐거운, 유쾌한, 통쾌한, 흔쾌한, 경이로운, 기쁜, 행복한, 반가운, 따뜻한, 감미로운, 포근한, 푸근한, 사랑하는, 친근한, 훈훈한, 정겨운, 뿌듯한, 산뜻한, 만족스런, 상쾌한, 흡족한, 개운한, 후련한, 든든한, 흐뭇한, 홀가분한, 편안한, 느긋한, 담담한, 친밀한, 친근한, 긴장이 풀리는, 안심이 되는, 차분한, 가벼운, 평화로운, 누그러지는, 고요한, 여유로운, 진정되는, 잠잠해진, 평온한, 흥미로운, 재미있는, 끌리는, 활기찬, 짜릿한, 신나는, 용기 나는, 기력이 넘치는, 기운이 나는, 당당한,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원기가 왕성한, 자신감 있는, 힘이 솟는, 흥분된, 두근거리는, 기대에 부푼, 들뜬, 희망에 찬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걱정되는, 까마득한, 암담한, 염려되는, 근심하는, 신경 쓰이는, 뒤숭숭한, 무서운, 섬뜩한, 오싹한, 겁나는, 두려운, 진땀나는, 주눅 든, 막막한, 불안한, 조바심나는, 긴장한, 떨리는, 조마조마한, 초조한, 불편한, 거북한, 겸연쩍은, 곤혹스러운, 멋쩍은, 쑥쓰러운, 괴로운, 난처한, 답답한, 갑갑한, 서먹한, 어색한, 찜찜한, 슬픈, 그리운, 목이 메는, 먹먹한, 서글픈, 서러운, 쓰라린, 울적한, 참담한, 한스러운, 비참한, 속상한, 안타까운, 서운한, 김빠진, 애석한, 낙담한, 섭섭한, 외로운, 고독한, 공허한, 허전한, 허탈한, 쓸쓸한, 허한, 우울한, 무력한, 무기력한, 침울한, 피곤한, 노곤한, 따분한, 맥 빠진, 귀찮은, 지겨운, 절망스러운, 실망스러운, 좌절한, 힘든, 무료한, 지친, 심심한, 질린, 지루한, 멍한, 혼란스러운, 놀란, 민망한, 당혹스런, 부끄러운, 화나는, 약오르는, 분한, 울화가 치미는, 억울한, 열받는, 짜증나는

5) 마셜 B. 로젠버그(2017), 비폭력대화, 한국NVC센터.

5. 욕구(Need) 찾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우리는 욕구(Need)라고 합니다. 욕구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 나가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 줍니다. 욕구의 중요성을 알고 욕구가 무엇인지 안다면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답니다.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충족하면 힘이 나고 다른 사람과 서로 돕고 사는 존재이며 온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욕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합니다. 하지만 욕구를 분명히 알고 욕구에 따라 말이나 행동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삶이 충만해지며 존중과 평화의 꽃이 피어나는 학급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똑똑 마음열기

■ **삶에서 필요한 것 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기**

- 다양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다.

■ **욕구 목록 읽기**

- 욕구 목록을 함께 읽고 모르는 단어는 없는지 확인한다.

Tip

- 욕구는 삶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 내면의 긍정적인 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내면의 평화와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 욕구라는 단어가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면 중요한 것, 필요한 것, 또는 가치로 표현해도 된다.

콩콩 활동하기

욕구 릴레이 게임

■ 욕구 목록

■ 소요시간 : 5분

■ 진행 과정

① 진행자가 학생들에게 욕구 목록을 나누어 준다.

② 욕구 목록 중에서 자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충족되기를 원하는 욕구를 찾아본다.

③ 돌아가며 릴레이로 욕구를 말한다.

- 먼저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일어나서 "저는 배려가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면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배려가 필요하시군요? 저는 존중이 중요해요."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존중이 중요하시군요. 저는 협력이 중요해요." 라고 계속 이어가도록 한다.
- 눈치를 보며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눈치게임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다.

④ 욕구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으로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해 준다.

욕구 빙고게임

■ 준비물 : 빙고판(4×4), 욕구 목록표

■ 소요시간 : 5~10분

■ 진행 과정

① 모둠별로 학생들이 학급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욕구를 욕구 목록에서 16개 골라 빙고판에 채운다.

② 한 모둠씩 돌아가며 자기 모둠에 쓰여 있는 욕구를 하나씩 말하고 빙고판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면 지운다.

③ 돌아가면서 계속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 어떤 방향이든지 세 줄이 다 지워지면 '빙고'를 외친다.

욕구 맞추기

■ 준비물 : 욕구 카드 30~40장 (또는 욕구를 크게 적은 스케치북)

■ 소요시간 : 5~10분

■ 진행 과정

① 활동에 참여할 대표학생 2인 1조와 욕구 카드를 넘겨줄 도우미 학생을 뽑는다.

② 한 학생이 욕구 카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학생은 욕구를 맞춘다.

- 설명이 어려운 욕구는 패스할 수도 있다.
- 3분 정도 제한된 시간을 주기도 하고 10개를 모두 맞출 때까지 계속하기도 한다.
-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욕구가 다양하게 많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활동으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다른 조 학생들도 앞으로 나와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활동 사진

곰곰 돌아보기

■ 서클로 성찰하기

- 상황에 따라 모둠으로 서클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활동 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나 욕구를 찾아 볼까요?
  -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참고 자료

욕구 목록[6)]

자율성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자유

신체적/ 생존

공기, 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따뜻함, 신체적 접촉(스킨십), 성적표현, 부드러움, 편안함, 돌봄을 받음, 보호받음, 애착형성, 의존(생존과 안전), 자유로운 움직임(이동), 운동

사회적/정서적/상호의존

주는 것, 봉사, 친밀한 관계, 유대, 소통, 연결, 배려, 존중, 상호성, 공감, 이해, 수용,지지, 협력, 도움, 감사, 인정, 승인, 사랑, 애정, 관심, 호감, 우정, 가까움, 나눔, 소속감, 공동체, 안도, 위안, 신뢰, 확신, 정서적 안전, 자기보호, 일관성, 안정성, 정직, 진실, 예측가능성

놀이/재미

쾌락, 흥분, 즐거움, 재미, 유머

삶의 의미

기여, 능력, 도전, 명료함, 발견, 회복, 깨달음, 자극, 효능감, 인생예찬(축하, 애도), 기념, 중요성, 참여, 희망, 주관을 가짐(자기만의 견해나 사상)

진실성

진실, 성실성, 존재감, 일치, 개성, 자기존중, 비전, 꿈

아름다움/평화

아름다움, 평탄함, 홀가분함, 여유, 평등, 조화, 질서, 평화, 영적 교감, 영성

자아실현

성취, 배움, 생산, 성장, 창조성, 치유, 숙달, 전문성, 목표, 가르침, 자각, 자기표현

6) 마셜 B. 로젠버그(2017), 비폭력대화, 한국NVC센터.

6.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 놀이

'놀이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는 정의도 있듯이 우리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며 깨닫기도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놀이를 통해 관계의 그물망을 촘촘히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면 학기 초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의 가치를 인식한다.
– Kusyszyn –

똑똑 마음열기

■ 학생들을 서클로 초대

■ 오늘 함께할 공동체 놀이에 대해 안내

- 공동체 놀이를 통해 모두가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놀이를 주로 기획한다.
- 이를 통해 충분히 서클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기 초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동체 놀이의 종류

① 손님 초대하기(소요시간: 5분)
② 하이·땡큐(인원 수에 따라 다르나, 30~50분)[7]
③ 이름 불러주기(소요시간:5~7분)
④ 우째 좀 난처하네요.(10분 이내)[8]

7) 방승호(2012), 기적의 모험놀이, 이지스퍼블리싱.
8) 전국재(2018), 행복한 만남과 사귐 .시그마프레스.

콩콩 활동하기

손님 초대하기[9)]

■ 소요시간 : 5분

■ 준비물 : 의자 개수를 '전체 인원+1'로 준비

신나고 경쾌한 음악(점점 빨라지는 음악, 3분 이내)

■ 진행 과정

① 모두가 하나의 원으로 모여 앉는다.

• 의자를 인원수보다 하나 더 마련하여 진행자 바로 옆자리에 빈 의자를 넣어 둔다.

② 진행자가 바로 옆에 앉은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어나게 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둘이 함께 서클 중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세 명이 손을 잡는다. 세 명이 손을 풀지 않고 비어있는 세 개의 의자에 돌아와 앉는 놀이임을 설명한다.

• 잡은 손을 풀지 않고 앉도록 한다.

③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앉았던 하나의 빈 의자가 생기면, 그 양 옆에 앉은 두 명이 의자에서 일어나 서로 손을 잡고 서클 안 다른 친구를 모셔와 빈 의자(3개)에 앉는다.

④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두 명이 한 사람을 초대하여 세 명이 손을 잡고 돌아와 앉는다.

• 2~3번 연습을 하여 놀이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⑤ 음악을 활용하여 놀이를 할 것임을 설명하고, 음악이 시작될 때 진행자부터 시작하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②, ③을 반복한다.

⑥ 음악이 끝날 때 앉지 못하고 서 있는 두 사람을 서 있게 하고 다함께 박수를 쳐 준다. 그리고 추후 모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알린다.

• 모두를 위한 기여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생각을 못할 때는 '배운 내용 요약하기' 등을 진행자가 제시해도 좋다.

⑦ 놀이가 끝나면 다시 큰 서클로 함께 놀이에 대한 느낌과 소감 등을 성찰한다.

9)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2016), 평화교육 TOOLKIT.

Tip

- 놀이를 할 때는 주변의 책상을 잘 정리하여 다치지 않도록 한다.
- 공동체 놀이를 하나씩 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의 성찰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성찰의 과정을 통해 놀이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배움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활동 사진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나

■ 소요시간 : 45분

■ 진행 과정

구분	진행자 스크립트
여는 질문	기억에 남는 칭찬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는 말 (목적 포함)	여러분이 이야기 나눈 그 칭찬을 기억하고 있는 까닭은 다른 이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의 입을 빌어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뻐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주제 활동	·활동 안내하기 이번 활동은 자신을 위한 상장을 만들기 입니다. 상의 이름과 상의 내용, 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창의력에 맡깁니다. 자유롭게 자신이 받고 싶은 상장을 꾸밉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받고 싶은 칭찬, 자기 자신에게 하는 칭찬, 앞으로 받고 싶은 칭찬도 괜찮습니다. 진심을 담아 만들기 바랍니다. ·상장 만들어 센터피스에 올려놓기 ·상장 수여하기 지금부터 상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실제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상을 주고받길 바랍니다. 상을 받은 사람은 이어서 상장을 뽑아 다음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닫는 말 (성찰 포함)	·소감나누기 상을 줄 때와 받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었나요?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정리하기 정말 각자가 듣고 싶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칭찬을 기억하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칭찬한 자신이 바라는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상 예시 자료

이대로 항상

이름 : 000

위 학생은 언제나 노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멋지므로 이대로 항상!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201×년 0월 0일
0 0 0

자기 자신에게 수여하는 상

사랑스런 우리 딸 상

이름 : 000

위 학생은 넘치는 애교로 아빠와 엄마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딸에게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사랑해~ 우리 딸!

201×년 0월 0일
0 0 0

소중한 사람에게 받는 상

희망을 던지는 투수 상

이름 : 000

위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로서 마운드에서 투수로 우수한 실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야구 선수를 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1×년 0월 0일
대한민국 야구위원회

미래에 자신이 받고 싶은 상

이대로 항상

이름 : 000

위 사람은 언제나 한결 같은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유의 따뜻한 말투와 배려 깊은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었으므로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1×년 0월 0일
OO중학교 O학년 O반

우리 반 친구를 응원하는 상

알-병아리-닭

■ 소요시간 : 10분

■ 진행 과정

구분	진행자 스크립트
여는 질문	여러분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번 놀이는 서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살짝 얼어 있는 관계의 벽을 허물기 좋은 놀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진화하며 발전해왔지요? 하지만 때로는 퇴화하기도 합니다. 이 놀이를 통해 진화와 퇴화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안내하기	여러분은 모두 알에서 시작합니다. 만남은 같은 종끼리 이루어집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이긴 사람은 한 단계 위로 진화하고, 진 사람은 한 단계 아래로 퇴화합니다. 다만 가장 낮은 단계는 '알'입니다. 닭에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분은 '완전체'가 되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보신 뒤 관찰한 것을 후에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1) '알'은 오리걸음으로 '알알알'을 외치며 가위바위보(이긴 사람은 한 단계 위인 '병아리'로 진화, 진 사람은 그대로 알) 2) 병아리는 '삐약삐약'을 외치며 같은 종끼리 만나서 가위바위보(병아리에서 지면 알로 퇴화, 이기면 닭으로 진화) 3) '닭'은 '닭닭닭'을 외치며 같은 종끼리 만나 가위바위보(진 사람은 병아리로 퇴화, 이기면 완전체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 관찰하기)
활동 후 성찰하기	·완전체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신 분들이 관찰한 것을 나누어주세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끝까지 남아 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놀이를 하면서 관찰하거나 생각이 떠오른 것이 있었나요?
닫는 질문	·이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새롭게 느꼈나요? ·오늘 활동의 소감을 나누어 주세요.

멋진 성품 선물

■ 소요시간 : 20분

■ 진행 과정

구분	진행자 스크립트
여는 질문	여러분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번 놀이를 통해 멋진 성품을 선물 받거나 다름 사람에게 선물하는 즐거운 경험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안내하기	·여러분 '봄날이 좋아요'를 외쳐주세요. (같은 단어를 외친 사람들끼리 모여 5명씩 6개의 모둠형성) 1) 모둠원에게 각각 1인당 4장의 색종이를 배부한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등 다른 4가지 색/색종이를 1/4 등분하여 사용) 2)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색 순서대로 종이를 배열하도록 한다. (싫어하는 색 맨 밑) 좋아하는 색종이는 순서대로 정리해 가지고 있고, 싫어하는 색종이는 엉덩이에 깔고 앉는다. ·여러분이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운 점, 자신의 멋진 점, 좋은 점 등을 맨 위의 색종이부터 순서대로 써 보세요. (너무 길지 않도록 5자~10자 이내/ 예: 넓은 이해심, 여유만만)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사랑스럽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남에게 밝힐 수 없는 부끄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보고 엉덩이에 깔고 앉은 색종이에 써 보세요. 이 종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쓰시고 다시 엉덩이 밑에 깔고 앉으세요. ·이제 모둠서클로 자신의 자랑스러운 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한 사람이 자신의 장점을 세 가지씩 이야기하며 서클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성실한 태도에 저의 여유로움을 합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의 여유로움을 선물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엉덩이 밑에 있는 부정적인 면들을 후련하게 버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들 이것을 구겨주세요. 다 함께 쓰레기통에 골인시켜주세요. 각자의 마음속의 짐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후련해지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닫는 질문	·이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새롭게 느꼈나요? ·오늘 활동의 소감을 나누어 주세요.

곰곰 돌아보기

■ 공동체 놀이 후 성찰하기

• 서클로 돌아가며 나누거나, 생각이 떠오른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자유롭게 나눈다.

- 활동 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나 욕구를 찾아 볼까요?
-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 진행과정

① 잔잔한 음악으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한다.

② 성찰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 오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어떤 성찰이 있었나요? 어떤 마음, 생각이 들었나요?

③ 놀이의 의미에 대하여 진행자가 간략히 이야기한다.

-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내 마음에 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서로 친숙해지는데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Tip

• 놀이의 의미를 나눌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 구절을 들려주며 관계를 맺는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해도 좋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현재와 과거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방문객(정현종) 중 -

Q&A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 놀이 Q&A

Q. '공동체 놀이'와 '일반적인 놀이'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놀이가 '경쟁'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공동체 놀이는 협력과 협동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다릅니다. 기존의 놀이를 협력의 방향으로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Q. 공동체 놀이를 굳이 해야 하나요?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의 친밀감을 높이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 기여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됩니다.

II.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연결하기

학교는 학생에게나 교사에게나 매우 바쁜 공간입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일정 중에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연결하기'는 학기 중에 따뜻한 관계로 서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활동명		이럴 때 사용해요
1	**학급자치서클**	• 학급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2	**듣고 싶지 않은 말 vs 듣고 싶은 말**	• 학생들 사이에 평화로운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3	**장점 찾기**	• 서로에게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
4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공동체 놀이**	• 타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때
5	**학기말 서클**	• 종업식이나 졸업식 등 학기를 마무리 하며 함께한 추억을 정리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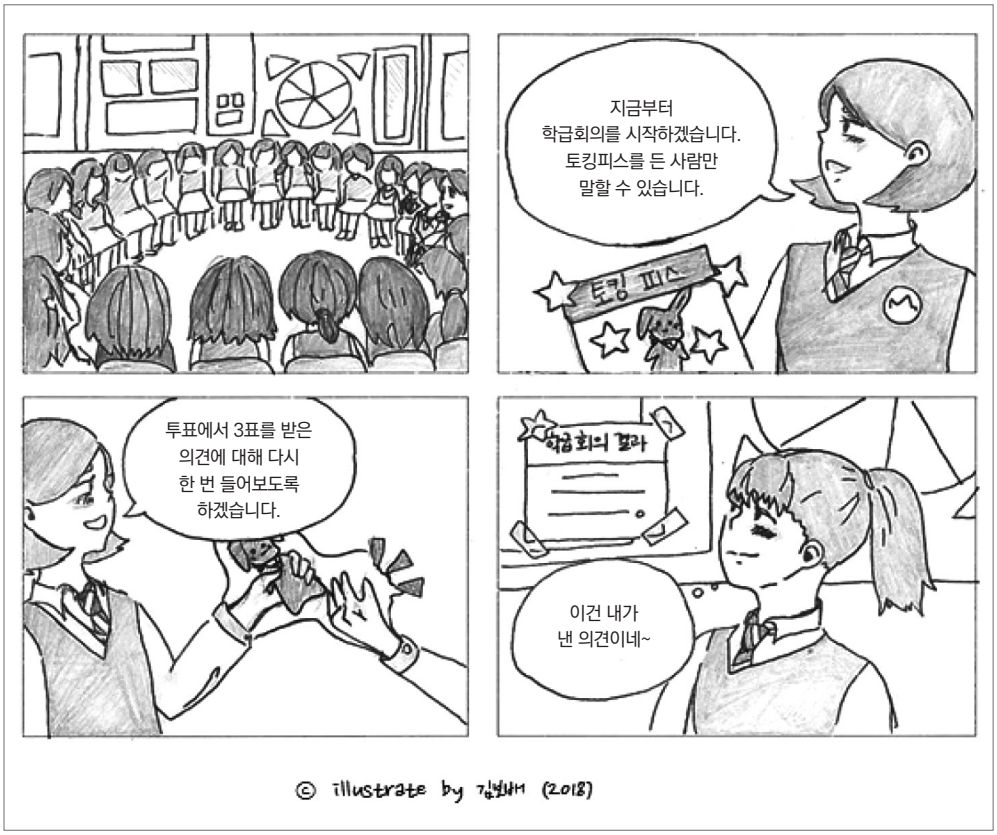
1. 학급자치서클

학급자치서클은 '소외'가 아닌 '참여'를 바탕으로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타인의 목소리에 나의 목소리를 더하고,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될 때 비로소 공동체원이 됨을 알게 됩니다.

똑똑 마음열기

■ 어느 학급회의 시간 1

■ 어느 학급회의 시간 2



- 동그랗게 둘러 앉아 실시되는 학급자치서클은 1/N의 의결권을 가진 참여자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모두 동의제'를 기본으로 한다. 누군가 의견을 제안하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수용할 때까지 의견을 반복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급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학급 일을 결정하며,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 학급자치서클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

- 학급임원선거
- 학급단합대회 계획하기
- 학급체험활동 계획하기
- 스포츠클럽대회 전략 짜기
- 학교 축제 학급 부스 만들기

콩콩 활동하기

학급 단합 대회

■ 준비물 : 전지 1장, 투표용 스티커, 유성펜, 토킹피스

■ 준비물 : 4월이나 5월 1차 지필고사 후, 7월 방학 등

■ 진행 과정

① 서클을 시작하는 간단한 질문을 하고 토킹피스를 돌린다.

•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자신과 상대방의 느낌을 살필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 지난 주 기억에 남는 학교생활의 한 장면은 무엇인가요?
- 요즘 나의 학교생활을 5자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② 진행자는 주어진 시간을 확인하고 학급서클의 주제를 말한다.

- 오늘 1시간 동안 '학급단합대회' 일정과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③ 진행자는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토킹피스를 돌린다.

- 일정은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예 : 시기, 무박 또는 1박)
- 장소는 어디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예 : 교외, 교내)
- 단합대회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로 진행되면 좋을까요?
- 단합대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④ 진행자는 서기의 도움을 받아 의견들을 정리하고, 같은 내용들끼리 정리한다.

⑤ 정리된 내용을 전지에 적고 구성원들이 투표한다.

⑥ 진행자는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을 확인하고, 소수의견을 들은 후 소수의견의 장점과 의미를 고려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문한다.

⑦ 진행자는 최종 의견들을 모아 정리하여 제시하고, 서기는 회의 후 이를 문서화해서 교실에 게시한다.

⑧ 오늘 서클을 하고 느낀 점이나 소감에 대해 나눈다.

⑨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단합대회 준비를 하고, 진행한다.

곰곰 돌아보기

- 학급자치서클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배운 것과 느낀 것 등을 나누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 준비물 : 단합대회 프로그램

■ 시간 : 필요시 탄력적 운영 가능

■ 진행과정

①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②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나눈다.

- 시기, 일정, 장소 등이 적절했는지 말해봅시다.
- 역할분담에서 느낀 것, 어려웠던 것 등에 대해 나누어봅시다.
- 프로그램 진행에서 좋았던 것, 개선할 것에 대해 나누어봅시다.

③ 서로에 대한 격려 및 감사 한 마디씩을 나눈다.

- 특별히 격려하고 싶거나 감사를 표할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거나, 쪽지에 학급 구성원들의 이름을 쓰고 섞은 후 한 장씩 뽑고, 뽑은 쪽지에 적힌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한다.

체육행사 서클 시나리오

■ 진행 과정

구분	진행자 스크립트
여는 말 (목적 포함)	체육행사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의 큰 행사이자, 많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와 교실에서 체육대회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목과 단합을 위해 준비된 체육행사에서 오히려 편을 나누고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육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학급의 다양한 요구를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체육행사에서 저마다 다른 기대를 갖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요구를 미리 확인하여 우리 학급의 체육행사 목표를 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주제 질문 예시	·우리반 친구들과 체육행사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종합 우승, 응원상, 단합 등) ·체육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 했을 때,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기를 바라는가? (구체적 상황을 제시한다면, 단체줄넘기를 하다가 줄에 걸렸을 경우 등) ·체육행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가치 목록이나 가치 카드 활용)
닫는 말 (성찰 포함)	학급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체육행사는 친구들의 다양한 기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결과보다 함께 만들어 가는 시간과 추억이 담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양보하며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은 우리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피곤함'이 아닌 '다양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학급공동체가 다양한 빛깔이 어우러지는 멋진 학급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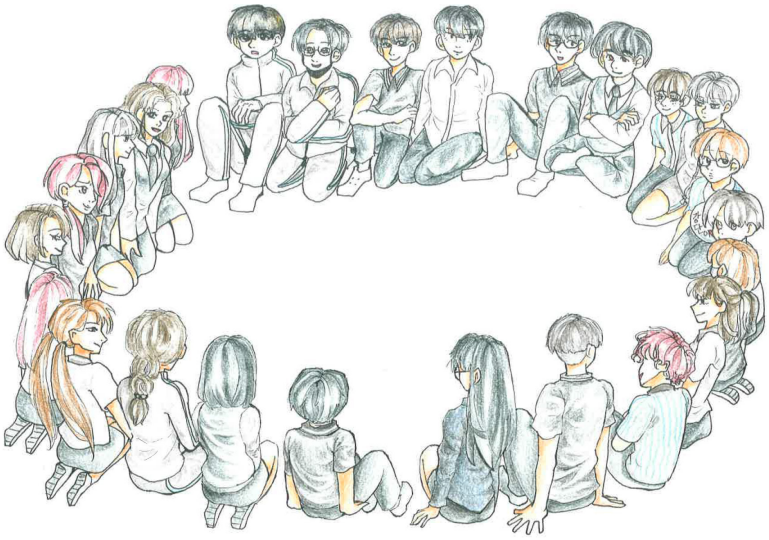
학급자치 서클 Q&A

Q.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의 욕구에 따라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소수의 불편한 학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클의 의사결정이 다수결의 원칙과 다른 모두동의제를 선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클의 최대 장점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학급의 목표로 정해지지 않은 소수의 학생들의 의견이나 느낌을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다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양립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온 경우에는?

A. 양쪽의 입장에 서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 다른 반 학생이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면, 이는 양립하기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는 학생들이 비난의 표현을 빼고 솔직하게 자신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양쪽의 입장을 듣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진행자가 양쪽의 입장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수정 제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 illustrate by 이지민 (2018)

참고 자료

00중 3학년 0반 무박 2일 프로그램

■ 일시 : 20△△년 7월 00일~7월 00일(여름방학식 전날)

■ 장소 : 도서관,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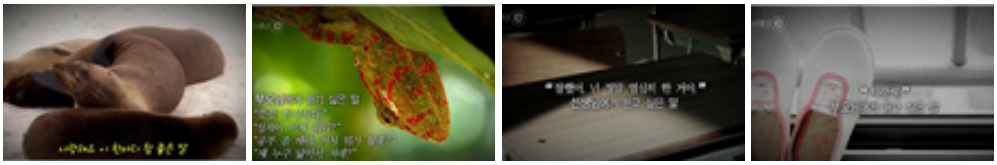
시간	7월 00일	7월 00일
01:00~04:00		• 작은 운동회(체육관) – 배구, 피구 – 장애물 이어달리기 • 간식타임
04:00~06:00		• 학급 서클(체육관) –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06:00~07:00		• 청소 및 정리 – 체육관, 도서관 – 담력훈련 설치물 정리
07:00~08:00		• 산책 – 학교 뒷산 한바퀴
08:00~08:50		• 아침식사 – 김밥, 음료수
08:00~09:00		• 수업준비
	• 종례 후 '무박2일' 준비	• 방학식 후 귀가 – 방학이다~!
17:00~19:00	• 저녁식사(등나무) – "나는야 요리 왕!" • 식사 후 정리	
19:00~20:00	• 몸 풀기 게임(체육관) – 실내화 양궁 – 평등한 가위바위보	
20:00~21:00	• 진실게임(도서관)	
21:00~23:00	• 간식타임 • 무서운 영화 한 편(도서관)	
23:00~01:00	• 귀곡성(교실건물) – "여기 처음이지? 짝꿍의 손을 놓지 마라~"	

2. 듣고 싶지 않은 말 VS 듣고 싶은 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친하지 않은 친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도 하고 단정적으로 꼬리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비난이나 비판이 섞인 말을 들으면 화가 나서 공격을 하거나 변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 친밀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듣고 싶은 말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대화가 소통의 대화로 변하여 평화로운 학급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똑똑 마음열기

■ 동영상 시청: EBS 지식채널 〈참 좋은 말〉



〈출처〉 EBS 지식채널e '참 좋은 말'(2013.8.27. 방영)
〈http://home.ebs.co.kr/jisike/index〉

■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 나누기

- 듣고 싶지 않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을 간단히 나눈다.

콩콩 활동하기

듣고 싶지 않은 말

■ 준비물 : A4용지, 쓰레기통

■ 소요시간 : 10~15분

■ 진행 과정

① 서클로 둘러 앉아 A4용지에 친구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과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3~5가지 정도 적는다.

-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을 함께 적어도 좋다.

②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적어놓은 종이를 구겨 공 모양을 만든다.

③ 서클 가운데에 쓰레기통을 준비해 놓는다.

④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가지 씩 말하며 구긴 종이를 던진다.

- 말하는 것이 불편한 학생은 그냥 던질 수 있도록 한다.

⑤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질문을 한다.

-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말, 비교하는 말, 강요하는 말, 상벌을 당연시 여기는 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⑥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한 경험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추측해 본다.

활동 사진

듣고 싶은 말

■ 준비물 : A4용지

■ 소요시간 : 10~15분

■ 공간 : 학급교실

■ 진행 과정

① 서클로 둘러 앉아 A4용지에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과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듣고 싶은 말을 3~5가지 정도 적는다.

-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을 함께 적어도 좋다. 이때 조용한 음악을 틀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② 듣고 싶은 말을 적어놓은 종이를 비행기로 접는다.

- 비행기 접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이 있으므로 접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더 좋다.

③ 비행기 날개에 제일 듣고 싶은 말 한 가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④ 한 학생씩 비행기 날개에 적은 듣고 싶은 말을 하면서 서클 가운데를 향해 비행기를 날린다.

⑤ 날아온 비행기를 가운데에 모아 놓는다.

⑥ 비행기를 하나씩 집어 비행기 주인을 찾아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

- 듣고 싶은 말을 들은 학생은 듣고 싶은 말을 해준 친구에게 감사표현을 한다.
  - 네가 나에게 "~~"라고 이야기해 주어서 나는 기쁘고 기운이 나네. OO야,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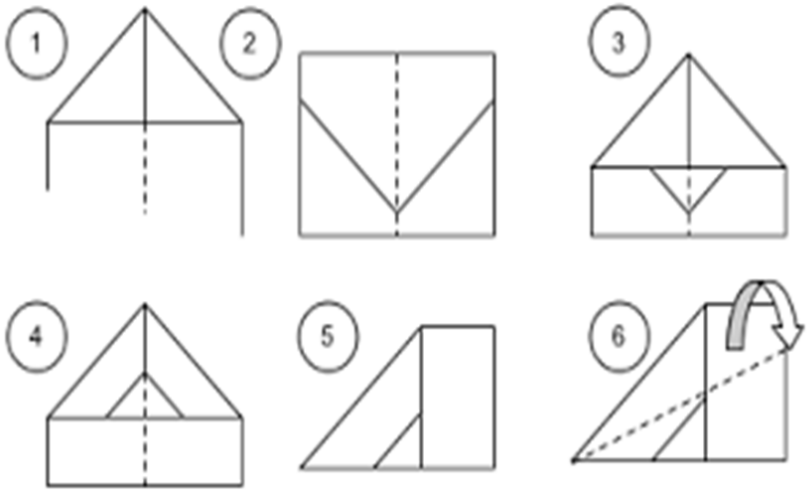
⑦ 활동 후 듣고 싶은 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질문을 한다.

- 공감하는 말,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말 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정리해 본다.

⑧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 준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때 상대방의 기분을 추측해 본다.

활동 사진

〈비행기 접는 법〉



곰곰 돌아보기

■ 서클로 성찰하기

- 친구들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는지와 어떤 말에 지지와 격려를 받는지 알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 이 활동 이후 친구들과 어떤 종류의 말을 많이 하고 싶은가요?
- 우리 학급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3. 적극적 경청과 공감

공감은 상대방의 느낌을 살펴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 분석, 진단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적극적 경청이라 합니다. 말하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자신이 들은 것을 말한 사람에게 자신의 판단이나 선입견을 섞지 않고 들은 대로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반영하기를 통하여 적극적 경청을 연습해 봅시다.

똑똑 마음열기

■ 마음을 나누어 함께 경청하며 읽기

- "톡톡"이라는 노래를 듣고 가사를 함께 읽는다.
- 한 사람이 먼저 읽고 싶은 만큼 읽다가 멈추면 다른 사람이 이어서 읽고 싶은 만큼 읽는다.
- 계속 반복하여 가사가 끝날 때까지 읽는다. 한 음절을 읽어도 되고 한 어절을 읽어도 되고 읽고 싶은 만큼 읽어도 된다고 알려준다.
- 학생들은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경청하게 된다.

톡톡

노래: 짙은

톡톡 얘기해보아요
똑똑 노크해보아요
땅 밑은 아무 일 없는지
하늘은 아프지 않은지

톡톡 얘기해보아요
꼭꼭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렛츠톡 뻔한 얘기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둘 찾아가는 길을 살금살금

렛츠톡 포기 하지 말고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걸
하나둘 찾아가는 길을 성큼성큼

톡톡 얘기해보아요
또또 말을 해 보아요
그 누가 대답을 할 건지
또 누가 답할 수 있는지

톡톡 얘기해보아요
꼼꼼히 계산해보아요
무엇을 손쓸 수 있는지
무엇은 손댈 수 없는지

렛츠톡 뻔한 얘긴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둘 찾아가는 길을 살금살금

렛츠톡 포기 하지 말고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걸
하나둘 찾아가는 길을 성큼성큼

■ 함께 읽고 난후 느낌을 나누기

콩콩 활동하기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 준비물 : 단순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A4용지, 빈 A4용지
- 소요시간 : 10~15분
- 진행 과정

1) 듣고 그리기

① 2명씩 짝을 지어 등을 대고 앉는다.
② 그림을 받은 학생은 설명을 하고 다른 학생은 설명을 들은 대로 그림을 그린다.
- 시간을 2분이나 3분으로 정해주도록 한다.
- 그림을 그리는 학생은 절대 질문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해 준다.

③ 역할을 바꾸어 다른 그림으로 같은 활동을 한다.

2) 듣고 물어보며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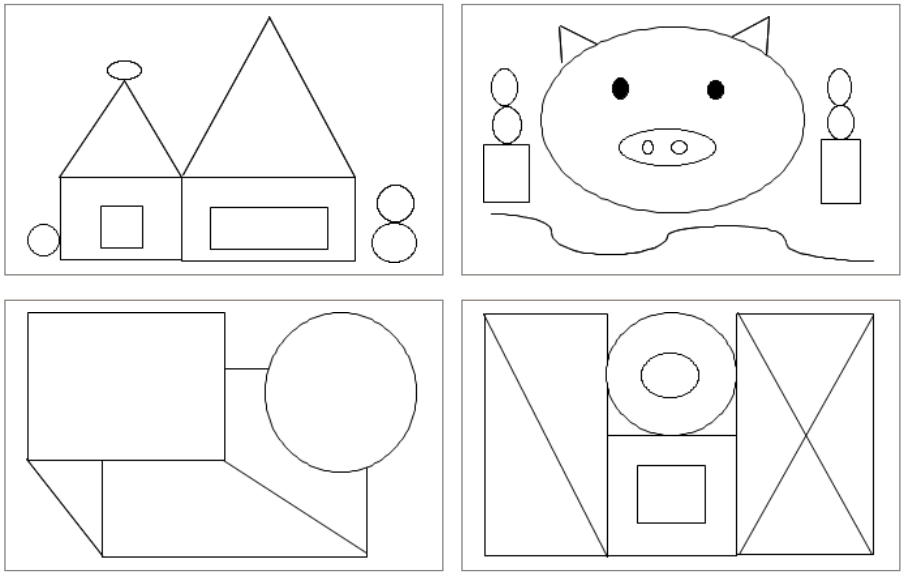
① 2명씩 짝을 지어 등을 대고 앉는다.
② 그림을 받은 학생은 설명을 하고 다른 학생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질문을 할 수 있다.
- 질문을 받으면 "예", "아니오" 로만 답할 수 있다.
- 시간을 2분이나 3분으로 정해주도록 한다.
- 질문에 답을 들은 후에 그림을 그린다.

③ 역할을 바꾸어 다른 그림으로 같은 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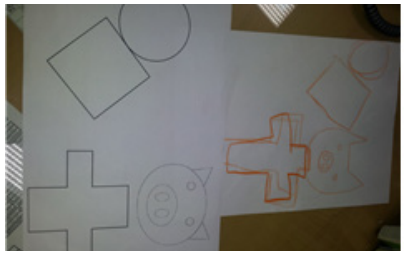
3) 두 활동 성찰하기

① 두 활동에서 그린 그림을 비교해 본다.
② 두 활동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서로 경험한 것을 나눈다.
- 친구의 말을 잘 들어야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므로 경청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 들은 대로만 그리는 것보다 질문을 해서 들은 내용을 확인하며 그리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제시할 그림의 예



활동 사진



공감 친구

- 준비물 : 문장카드(참고자료 참조), 느낌말 목록, 욕구 목록
- 소요시간 : 10~15분
- 공간 : 학급교실
- 진행 과정

1) 공감하지 않으며 듣기

① 두 사람이 짝을 짓고 말할 사람과 듣는 사람을 정한다.
② 말하는 사람은 최근에 즐겁거나 행복했던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은 딴 곳을 쳐다보고 딴 짓을 하며 듣는다.
③ 역할을 바꾸어 활동해 보고 서로 느낀 점을 나누어 본다.

2) 공감하며 듣기(적극적 경청)

① 말하는 사람은 문장 카드에 적혀 있는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은 상대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상대의 이야기를 반영해 준다.
- 엄마가 휴대폰 좀 그만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지? 맞아?

② 말하는 사람이 맞다고 대답을 하면 그 때의 느낌을 찾아서 말해 준다.
- 속상했겠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운했어?

③ 역할을 바꾸어 활동해 보고 서로 느낀 점을 나누어 본다.

활동 사진

곰곰 돌아보기

■ 서클로 성찰하기

- 적극적 경청과 공감을 받았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 나는 언제 공감을 받고 싶나요?
- 공감을 정의해 볼까요? 5자 또는 7자로 표현해 보아요.

적극적 경청 서클 시나리오

연번	내용	진행자 스크립트
1	환영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극적 경청 훈련을 통해 서로 온전히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	서클 열기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잠심 30초의 침묵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의 상태를 느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침묵한다)
3	토킹피스, 서클의 약속 안내하기	1. 일상적 듣기 ·여러분 '동행'을 외쳐주세요. '동'을 외치신 분이 오른쪽 '행'을 외친 분의 앞으로 이동하여 서로 마주보고 앉아 주세요. (동심원 형태)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내 마음에 걸려 있는 힘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다 하셨으면 '동'을 외친 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행'을 외친 분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릴 것이고 2분이 지난 뒤에는 역할을 바꾸실 것입니다. 2. 느낌 공감하며 듣기 ·이번에는 '동'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때 '동'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추측해보고, '행'이 '그때 ~ 하셨을 것 같아요'라며 느낌을 공감하며 말해봅시다. 역시 시간은 2분이고, 시간이 다 되면 역할을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3. 필요/욕구 공감하며 듣기 ·이번에는 '동'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를 추측해서 '행'이 그때 '~ 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 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라고 필요/욕구를 공감하며 말해봅시다. 역시 시간은 2분이고, 시간이 다 되며 역할을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4	활동을 통한 성찰	·이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1, 2, 3번의 활동에서 발견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5	서클 닫기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서클을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참고 자료

공감문장 카드

휴대폰으로 수행평가 자료 검색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휴대폰 좀 그만 하라고 말씀하셨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하다가 걸려서 휴대폰을 뺏겼는데 일주일 후에 받으러 오래.

이번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망쳤어.

수업시간에 다른 아이들도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나만 야단쳤어.

엄마, 아빠는 내 동생이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고 나만 미워해.

이번에 연예인 팬미팅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시험도 망쳐놓고 어디를 가냐면서 못가게 해.

내일 방과 후에 학급대항 축구대회가 있는데 엄마가 학원 때문에 축구대회 나가지 말래.

어제부터 감기인지 목이 아픈데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학원 가기가 싫어.

1교시 쉬는 시간에 희경이가 혜옥이랑 이야기하는데 아마 내 뒷담까는 거 같아.

어제 새벽에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결승전 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늦었다고 축구를 못보게 했어.

새로 산 틴트를 바르고 왔는데 선생님한테 걸려서 화장 지우고 반성문 썼어.

4. 장점 찾기

평화로운 학급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친구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아 자존감을 높이고 친구의 장점을 인정해 주고 지지해 줄 수 있을 때 교실 속에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친구들의 모든 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친구들의 개성을 존중해 줄 수 있다면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 볼 수 있다면 우리 학급은 이미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가 아닐까요?

똑똑 마음열기

■ 이야기 나누기

- 다음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느낌과 생각을 나누어 본다.

동물 전쟁 [10)]

동물들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나귀와 토끼와 개미와 코끼리가 사령관인 사자의 소집명령을 받고 모였는데 동물들은 서로의 약점을 놓고 헐뜯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멍청해서 도움이 안될텐데....
토끼는 겁쟁인데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개미? 보이지도 않는 녀석이 어쩌겠다는 거지?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될텐데?
잠시 뒤 사자가 와서 각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나귀는 체력이 좋으니 식량보급을 맡는다.
토끼는 발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며,
개미는 작아서 눈에 띄지 않으니 첩보와 게릴라 임무를 수행한다.
코끼리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 전면전에서 돌격부대로 투입한다. 이상~~"

-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고 친구들의 장점도 찾아보는 활동임을 안내한다.

10) 최규상, 황희진(2010), 긍정力 사전, 작은 씨앗.

콩콩 활동하기

손바닥 뒤집기

- 준비물 : 8절 색도화지(또는 B4종이), 색연필(채색도구)
- 소요시간 : 10~15분
- 진행 과정

① 8절 색도화지에 자기 손바닥을 대고 손가락 선을 따라 양손을 모두 펜으로 그린다.
  - 손가락 끝마다 자신만의 캐릭터로 예쁘게 꾸민다.

② 왼쪽 손의 손가락마다 5개의 장점을 쓰고 오른쪽 손의 손가락마다 5개의 단점을 쓴다.

③ 오른쪽 손의 손가락에 쓰인 5개의 단점을 뒤집어 장점으로 바꾸어 쓴다.

Tip

- 충분히 생각해도 장점이나 단점이 5개가 생각나지 않으면 장점 목록을 제공하여 찾아서 쓰도록 한다.
-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는 친한 친구들에게 서로 교환해서 써주도록 해도 좋다.
- 장점 5개를 쓰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은 학생이라 볼 수 있으므로 잘 기억해 놓고 다음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칭찬을 해주도록 한다.

활동 사진

참고 자료

열정적이다. 창의적이다. 기억력이 좋다. 친절하다. 말을 잘한다. 잘 들어준다.
분석을 잘한다. 적응력이 좋다. 실천적이다. 신중하다. 운동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
노력을 잘한다. 협동적이다. 지혜롭다. 정리를 잘한다. 예리하다. 감수성이 뛰어나다.
설명을 잘한다. 리더십이 있다. 긍정적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솔직하다. 예술적이다.
시간을 잘 지킨다. 배려를 잘한다. 겸손하다. 공정하다. 진실하다. 끈기가 있다.
낙관적이다. 용기가 있다. 친구가 많다. 유머가 있다. 자기조절을 잘한다.

친구 장점 찾기

- 준비물 : 포스트잇
- 소요시간 : 20~25분
- 공간 : 학급교실
- 진행 과정

① 두 개의 동심원을 만들어 마주보게 선다.
- 학생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진행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② 먼저 악수를 나누고 포스트잇에 만난 친구의 장점을 써서 친구 몸에 붙여 준다.
- 어떤 장점을 쓰는지 절대 말하지 않으며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보지 않는다.
- 장점 쓰는 것을 어려워 할 수 있으니 앞 장에 있는 장점 리스트를 칠판에 적어 놓을 수도 있다.

③ 안쪽 원은 시계방향으로 바깥쪽 원은 반시계방향으로 돌아서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면 ② 번 과정을 반복하여 활동한다.

④ ②, ③번 과정을 반복하여 처음 만난 친구와 만나면 활동을 마친다.

⑤ 내 몸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모두 떼어 내어 친구들이 써준 장점을 분류해 본다.

활동 사진

곰곰 돌아보기

- 서클로 성찰하기
  - 내가 생각했던 나의 장점과 친구들이 찾아준 나의 장점을 무엇인가요?
  - 친구들이 장점을 찾아주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 오늘의 활동으로 무엇을 배웠나요?

5.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공동체 놀이

평화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평화감수성'입니다. 회복적생활교육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자양분인 평화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놀이를 통한 경험교육이 필요합니다. 놀이경험을 통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학생들에게 평화감수성을 심어준다면 깊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 마음열기

■ 평화감수성 교육의 목표 안내

- 알아차리기(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
- 숙달하기(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개인적인 기술 증진시키기)
-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기(사회적 기술 증진)
- 개별 존재의 고유성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존중하는 관계 형성

■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공동체 놀이의 사례

- 가치 열매 바구니
-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 인형극 놀이

콩콩 활동하기

가치 열매 바구니

■ 준비물 : 작은 바구니 1개, 포스트잇, 펜

■ 소요시간 : 5~10분

■ 진행 과정

① 다 함께 원으로 둘러앉는다.

② 진행자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③ 학생들은 각자 포스트잇에 한 가지의 가치를 적어서 두 번 접은 후 바구니에 넣는다.

④ 바구니 속 종이를 여러 번 섞은 다음, 진행자가 4개의 종이를 한 장씩 뽑아서 적혀 있는 가치를 읽고 함께 공유한다.

⑤ 진행자 오른쪽에 앉은 사람부터 공유했던 네 가지 가치 중 하나씩 가치를 외치고 반복하여 모두가 돌아가며 외치게 한다. (사랑-배려-공감-질서-사랑-배려-공감-질서)

- 자신이 외친 가치를 기억하도록 안내한다.

⑥ 진행자가 앉았던 의자를 뒤로 빼 놓아 의자가 하나 부족하게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각자 자신만의 가치열매 바구니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⑦ 진행자가 먼저 시범을 보인다. '평화로운 우리 반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지요' 라고 말하면 자신이 외친 가치가 '사랑'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바꾼다.

- 자신이 앉았던 자리가 아닌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 '사랑과 배려라는 열매가 필요하겠죠', '배려·공감·질서가 필요하겠죠', '모든 열매가 다 필요하겠죠' 등등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진행자도 함께 동참하여 자리를 바꾸고, 자리에 앉지 못한 한 사람이 능력자(술래)가 되어, 자신만의 가치열매를 외친다.

⑧ 3~5분 정도 진행했을 때 바구니에서 다시 '가치'를 네 가지 선택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⑨ 놀이가 마무리 된 후 서클로 놀이를 하며 느낀 점, 소감 등을 나눈다.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 소요시간 : 10분

■ 진행 과정

① 다 함께 원으로 둘러앉는다.

② 진행자부터 일어나 서클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이름을 넣어 '김평화! 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자신만의 몸동작을 취해 보여준 후 제자리에 돌아온다.

③ 진행자 옆 사람이 일어나 서클 안으로 들어와 '김평화! 넌 그렇게 할 수 있니?', '이회복! 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자신만의 몸동작을 취하여 보여준 후 제자리로 돌아온다.

④ 서클로 모두가 다 돌아가며 ③을 반복한다.

⑤ 한 바퀴 돌면, 서클로 함께 느낀 점, 소감 등을 나눈다.

Tip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한다.
- 경쟁논리에 대한 통찰을 이끌 수 있도록 진행해도 좋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진행해도 좋다.
- 이전 사람과 다른 몸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한다.

활동 사진

인형극 놀이 [11]

- 소요시간 : 10분
- 장소 :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
- 진행 과정

① 모두가 일어서서 두 명씩 짝을 이루어 마주 본다.

② 진행자가 활동에 대해 예를 보여 주며 간략히 설명한다.

③ 두 명 중 한 사람이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역할을, 다른 한 사람은 인형이 되어보도록 한다.

- 조종하는 사람의 손바닥과 꼭두각시 인형의 이마가 20cm 길이의 강철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한다.
- 조종자는 1분간 꼭두각시를 마음대로 조종해 보도록 한다.

④ 조종자와 인형의 역할을 바꾸어 진행해보도록 한다.

⑤ 진행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참가자들이 활동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형극 놀이 후 진행자 멘트

- 활동 후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조종자일 때의 마음과 인형일 때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나요?
- 활동을 하며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 사회에서 인형·인형 조종자의 관계를 찾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 속에서 인형·인형 조종자의 다양한 층위를 인식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11)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2016), 평화교육 TOOLKIT.

곰곰 돌아보기

- 공동체 놀이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큰 서클로 돌아와 앉는다.
-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차분한 음악을 준비한다.
  (1분 간 음악을 들려주어 분위기를 전환한다)
- 자유롭게 혹은 서클로 돌아가며 놀이에 대한 소감, 통찰을 나눈다.

놀이 후 진행자 멘트

- 놀이를 하면서 혹은 활동 후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나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죠?
- 이 놀이를 하며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나 관찰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활동 사진

6. 학기말 서클

학기말이 되면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과 이별을 준비하고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들을 만나는 또 다른 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기말 종업식을 서클로 마련한다면 학생들 가슴에 깊이 남는 추억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똑똑 마음열기

■ 준비물
- 모둠 수만큼의 양초, 털실, 느낌카드, 가치카드, 펜, 색종이, 포스트잇, 잔잔한 음악

■ 교실 환경 준비
- 센터피스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의자를 동그랗게 서클로 만들어 놓는다.
- 다양한 꽃, 풍선 등으로 교실을 꾸며 의미 있는 의식이 되는 환경을 마련한다.

콩콩 활동하기

학기말 서클

■ 준비물 : 센터피스, 토킹피스, 가치카드

■ 시간 : 90분(탄력적 운영 가능)

■ 공간 : 구성원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

■ 진행 과정

① 환영인사로 서클에 초대한다.

② 서클 체조로 서클을 시작한다.
- 한 친구가 하나의 동작을 취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 동작을 따라 한다. 모두가 돌아가며 동작을 취한다.

③ 센터피스와 토킹피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 서로의 연결을 의미하는 털실, 자신을 태워 따뜻함을 선사하는 양초, 공간을 채우는 음악, 선물이 될 가치카드

④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문을 하며 토킹피스를 돌린다.

- 학기말, 종업식을 맞이하는 현재의 느낌은 무엇인가요?
- 자신의 느낌을 나타내는 카드를 가져와서 들고 토킹피스로 삼아 서클로 이야기해봅시다.
- 내가 생각하는 1년 동안 우리 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무엇인가요?
- 올 해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가요?
- 올 해 가장 후회가 되는 일, 버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⑤ 뜨거운 의자[12](모둠 서클) : 교실의 불을 어둡게 꺼 놓는다.

- 전체서클을 8명 이내의 모둠서클로 형성한다.
- 서클 안에 하나의 의자를 놓아두고, 기준을 한 사람 정한다. 기준이 되는 사람이 토킹피스인 양초를 갖고 있도록 한다. (전체 진행자가 양초에 불을 붙여 준다.)
- 8명 중 한 사람이 가운데 의자에 앉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운데 사람을 향해 가깝게 모인다. 기준인 사람부터 양초를 손에 들고 가운데 사람에게 1년 동안 받았던 감사함, 그 사람의 장점, 강점 등을 진솔하게 1분 이내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야기가 끝나면 양초를 옆 사람에게로 건네주어, 모두가 돌아가며 가운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
- 서클 안에 있는 사람은 조용히 듣고 자신의 느낌을 느낀다.
- 모두가 돌아가며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가운데 자리에 앉고 위의 내용을 반복한다.
- '뜨거운 의자'가 끝나면 전체서클로 돌아오도록 한다.

12) 전국재(2015), 행복한 만남과 사귐 연수자료, 시그마프레스.

⑥ 서로의 앞날을 축하하기 (전체서클)

- 새해에 자신이 꼭 갖고 싶은,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은 '가치'를 하나씩 고르도록 한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자기 이름을 써서 카드에 붙여 센터피스 위에 올려 놓는다.
- 진행자부터 일어나 한 장의 카드를 골라 '소중한 우리 000야! 내가 너에게 00를 선물할게' 와 같이 이야기를 하며, 가치카드를 선물한다. 둘이 서로 포옹을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한다.

⑦ 소감 나누기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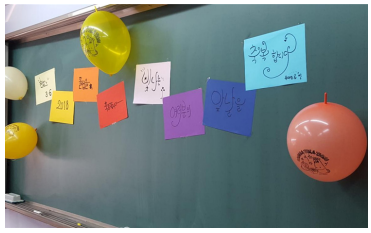
- 시간이 부족할 때는 5글자, 7글자로 소감을 나누도록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전체서클과 모둠서클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서클의 역동을 느끼며 상황에 맞게 서클을 유지, 진행한다.
- 학기말 서클을 통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한다.
- 새로운 출발을 지지하며 축하와 이별의 애도를 담아 진솔하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식 서클 시나리오

연번	내용	진행자 스크립트
1	**환영 인사**	안녕하세요? 지난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과 또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면에서 도와주신 가족 및 친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2	**서클 열기**	이곳에 함께하는 시간이 모든 분들께서 의미 있고 또한 평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10초의 침묵을 초대한 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정도 침묵한다) [tip 잔잔한 음악과 1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시작해도 좋다.]
3	**센터피스와 토킹 피스의 의미 설명하기**	서클은 동그랗게 둘러 앉아 서로를 존중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롭고 안전한 의사소통방법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익숙할 텐데 다른 분들이 새롭게 만나실 수 있으니 센터피스와 토킹피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센터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센터피스는 원의 중앙에 놓이는 바닥의 장식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센터피스에 놓여있는 '조각보'처럼 다양한 빛깔과 향기의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회를 물들이며 자신만의 빛깔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마음과 진심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귀중한 졸업장이 센터피스에 서클형태로 놓여있습니다. 토킹피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토킹피스를 가지고 있는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토킹피스를 가진 사람만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약속을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4	**졸업장 수여**	오늘 졸업장은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수여하며 그 친구를 위한 축하와 감사의 이야기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이 토킹피스를 대신하는 것이지요. 먼저 제가 한 장의 졸업장을 뽑겠습니다. (졸업장에 이름이 적힌 학생 앞으로 다가간다. 첫 번째 학생은 전체를 대표하게 되므로 졸업장의 내용을 읽어준다. 그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00야, 1년 동안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구들 도와주고, 성실히 노력하던 너의 모습이 참 대견했어. 언제나 웃어주던 네가 선생님에게는 해피 바이러스였어. 졸업 축하하고 힘들거나 기쁠 때 언제라도 학교로 찾아오렴. 선생님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졸업 축하해!" 이제 졸업장 받은 친구가 다른 친구의 졸업장을 한 장 선택하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축하와 감사의 이야기를 전해봅시다. [전체가 돌아가며 졸업장을 수여하고, 축하와 감사의 이야기를 나눈다]

연번	내용	진행자 스크립트
5	**졸업 소감 나누기**	1년 동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털실을 토킹피스로 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 선생님 등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실을 조금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 뒤 옆 사람에게 건네주시면 됩니다. 삶을 나누었던 친구들, 여러분을 위해 지금까지 함께 지지해주셨던 부모님 및 친척 분들에게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서클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하기**	모두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열고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잠시 이 털실을 봐 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헤어지지만 우리 함께 했던 많은 추억들과 행복했던 연결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평화로운 삶의 물결을 헤엄쳐 가시길 바랍니다. [털실을 흔들면서 이야기한 후, 이야기가 끝나면 털실은 가만히 바닥아래에 내려 놓도록 한다.]
7	**서클 마무리하기**	이것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졸업식 서클을 닫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사랑하는 우리반 친구들 또한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졸업식 서클을 닫겠습니다.

활동 사진



Tip

- 졸업식 하루 전에 졸업식 전야제 서클을 먼저 실시하면서 우리 학급 안에서 기뻤던 일과 아쉬운 일 혹은 힘들었던 일들을 먼저 나누고 졸업식 서클을 실시하면 더욱 좋다.
- 하루 전 서클을 통해 미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부모님이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보고 오게 하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일 년 동안 함께 했던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함께 보고 시작해도 의미 있는 졸업식 서클이 될 수 있다.
- 서로 졸업장을 건네며 하이파이브나 포옹 등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다.

III.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지키기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다가 갈등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갈등이 발생한 후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지키기'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회복적인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활동명		이럴 때 사용해요
1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체 놀이**	• 학급 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싶을 때
2	**문제해결 서클**	• 학급 구성원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3	**회복적 대화모임**	• 갈등이 발생하여 관련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1.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체 놀이

'고양이와 쥐' 공동체 놀이를 통해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의 역할을 해봅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폭력이 일어난 상황과 비교하여 소감을 나누어 봅니다. 충분한 성찰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폭력의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도록 합니다.

고양이와 쥐 게임

■ 역할 안내

- 쥐 : 원의 안과 밖을 벽을 맡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도망 다닌다. 고양이에게 잡히면 게임이 끝난다.
- 고양이 : 쥐를 잡기 위해 쥐를 쫓는다. 벽을 맡은 친구들의 방해로 뚫고 쥐를 잡아야 한다. 쥐를 잡으면 게임이 끝난다.
- 벽 : 쥐와 고양이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도록 최대한 돕는다.

고양이 역할 학생은 원 밖에서 출발한다.

쥐 역할을 맡은 학생은 원 안에서 출발한다.

벽을 맡은 학생들은 고양이 역할을 맡은 학생은 통과할 수 없도록 막고 쥐 역할을 맡은 학생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진행 과정

① 고양이 1명, 쥐 1명을 선정한다. (희망하는 학생으로 선정)

② 나머지 학생들은 벽을 만들기 위해 원을 만들고 손을 잡는다.

③ 벽이 된 학생들은 쥐는 통과시켜 주고, 고양이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④ 고양이가 된 학생은 쥐를 잡는다.

⑤ 게임은 3분 정도 지속한다.

⑥ 5~6번의 텀으로 여러 번 게임을 진행한다.

⑦ 고양이나 쥐는 학생들의 학교급 별로 2~3명으로 늘려서 진행가능하다.

■ 게임 후 성찰

① 동그랗게 둘러 앉아, 조용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음악 감상한다.

② 간단한 활동 소감을 나눈다.

-'고양이와 쥐' 게임을 하고 난 느낀 점은?

③ 활동에 담긴 메시지를 안내한다.

- 교실 안의 상황에서 모두가 배척당하는 고양이와 같은 학생과 모든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쥐와 같은 학생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때 벽이 된 학생들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있는 목격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적이 없었을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함께 이야기 해본다.

④ 활동과 관련된 주제 질문을 통해 성찰의 내용을 나눈다.

- 고양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 고양이는 벽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 우리 주변에 '쥐와 고양이'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가?
- 내가 고양이의 처지에 놓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 앞으로 내 주변에서 고양이와 같은 친구를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

⑤ 활동과 관련된 소감을 나눈다.

- 이 게임을 통해 느낀 점은?
- 학교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고 자료

학급 프로젝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UCC나 플래시몹 제작

학급 프로젝트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플래시몹을 제작해 본다.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담아 내용을 구성하고, 플래시몹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학급 친구들과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다.

■ 역할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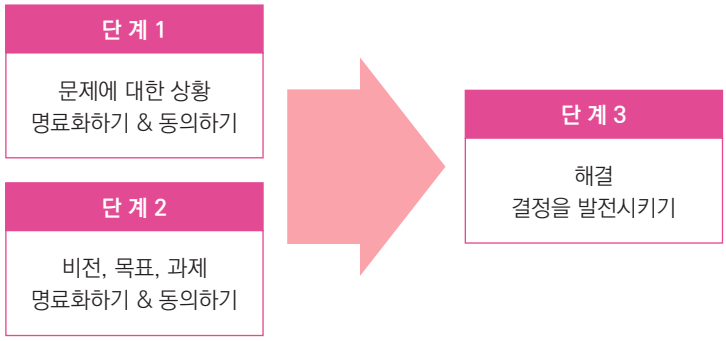
단계	구분	역할
1단계	시나리오팀	음악에 맞게 전체 이야기 구성, 자막이나 내레이션 작성
2단계	안무팀	안무 구성 및 안무 지도
3단계	미션팀	주제를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한 후 삽입할 영상을 촬영 (플래시몹의 주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 상황극, 카드 섹션, 그림, 인터뷰 등
4단계	촬영팀	카메라로 영상 촬영 (안무 영상과 미션 영상 촬영)
5단계	편집팀	촬영 팀에게 받은 영상을 편집

활동 사진

2. 문제해결 서클

'문제해결 서클'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가 함께 갈등에 직면하여 공동체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학급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학급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합니다.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를 고민하는 과정을 통하여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문제해결 과정



■ 문제해결 서클 적용 사례

- 체육대회나 축제 준비로 학생들의 갈등이 증폭되었을 때
-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깨진 유리창, 부서진 책상 등)
- 부정적인 언어 사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할 때

Tip

- 언어폭력, 기물파괴, 수업방해, 지각 등의 다양한 문제 상황 중 학급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너무 심각하지 않은 문제를 다룰 수 있다.
- 특정학생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한다.

■ 서클 흐름도

1	사건 이해개요와 이에 대한 교사의 우려를 '나 전달법'으로 전하고 서클진행의 규칙과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기
2	사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질문 및 그 사건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하기 • 무슨 일이 있었지? • 그 때의 기분은 어땠지? • 어떤 결과(피해)가 생겼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역할)은 무엇이지?
3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질문하기 •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니? • 너희들이 앞으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니?
4	3단계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것들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들을 선택하기 • 제안된 내용들에 대한 선택, 수정 혹은 서로 결합 •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실현가능한 구체적 행동을 약속
5	성찰 질문하기 • 간단히 한 문장으로 느낌 나누기로 마무리

© illustrate by 이경은 (2018)

문제해결 서클 실습 [13]

■ 갈등사건 : 합창대회 준비 중 학급 아이들 사이의 갈등 증폭 (합창대회 2일전)

• 갈등내용 : 곡 선정, 연습 참여도, 안무의 난이도, 노래의 난이도 등

■ 서클 예시① [14]

서클의 종류	문제해결 서클		
서클 목표	관계회복을 통해 평화롭게 합창대회에 참여하게 한다.		
서클 대상	학급전체	서클 인원	학급전체
토킹피스&의미	기린인형 – 평화, 비폭력대화, 소통, 배려를 의미		
센터피스&의미	감정카드, 학급 전체 사진, 학급의 의미 있는 물건		

질문 설계하기

여는 질문	마음열기	• 센터피스에서 지금의 자신의 기분에 맞는 감정카드를 골라 이야기해보기
주제질문	사건이해	• 합창대회를 준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영향확인	• 합창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해보기 • 친구들에게 돌봄, 배려를 받고 싶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기
	피해회복	• 합창대회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해 줄 있는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가 ? • 모두가 행복한 합창대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기
	재발방지	• 서클에 참가한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 이유 말해보기
닫는 질문	의미다짐	• 서클을 마친 소감이나 느낌 서로 나누기

■ 서클 예시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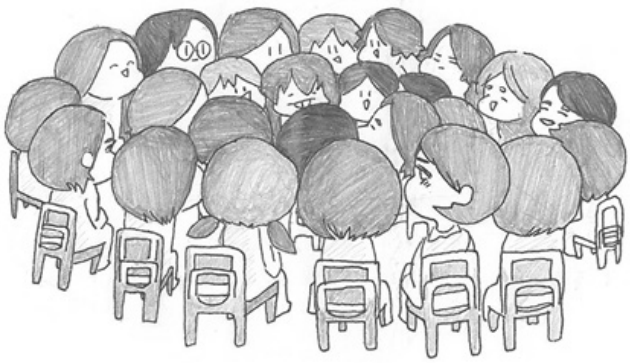
서클의 종류	문제해결 서클 (어항서클)
서클 목표	학급구성원간의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단합된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합창대회에 출전한다

13) 경기도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2016), 갈등해결워크숍 자료집.
14) 문제해결 서클 양식 :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에듀피스 자료 참고

서클 대상	학급전체	**서클 인원**	어항서클로 내부서클 16명, 외부서클 나머지 학생들
토킹피스&의미	털실 - 학급서클 활동을 통해 하나 되었던 경험의 기억		
센터피스&의미	학급에서 실시되었던 공동의 미술작품, 공동화분 등 화합의 기억이 들어있는 물건		

질문 설계하기

여는 질문	마음열기	• 지금 우리반하면 생각나는 것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그 이유는 ?
주제질문	사건이해	• 합창대회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볼래 ?
	영향확인	•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야기해보자 •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보자
	피해회복	•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격려나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해보자
	재발방지	• 합창대회 관련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학급공동체가 존중과 배려를 위해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약속을 정해보자
닫는 질문	의미다짐	• 가치카드 중에서 이 서클을 마친 소감과 관련된 카드를 골라서 느낌과 다짐을 이야기해보자



ⓒ illustrate by 김보

어항서클

한걸음 더

① 공동체의 문제를 문제해결 서클로 함께 해결하기

학기를 보내다 보면 학급에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몇몇 학생들 간의 갈등도 있지만 학급의 모든 학생이 관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사의 지도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지만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교사가 정한 방침을 잘 따른다고 해도 일부 학생이 그 지시를 어기면 교사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교사의 방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 서클의 목적입니다. 자율적인 접근은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문제해결 서클은 학생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책임감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문제해결 서클을 통해서 학급구성원은 목표를 공유하고 모두가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순종보다 자율에 의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② 후속 서클을 꼭 열기

문제해결 서클 이후엔 후속 서클이 꼭 필요합니다. 잘 지켜지고 있다면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목적의 서클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함께 지켜가야 할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잘 지키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문제해결 서클을 열어 이를 점검하고 함께 지켜가야 할 사항을 다시 정합니다. 일부 학생이 지키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맞는 서클을 계획하는 것 좋습니다.

③ 문제해결 서클의 약속을 어긴 학생이 있는 경우를 위한 후속 서클 열기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린 경우라면 방침을 수정하거나 강한 압력(혼내기, 벌)을 해당 학생에게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해결 서클에선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해당 학생에게 더욱 강한 책임감과 역할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후속 서클의 목적은 벌을 주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여 찾고 보다 굳건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전에 후속 서클이 열릴 수 있음을 반

드시 알려 서클의 목적을 공유해야 합니다. 서클의 목적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면 해당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과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클 전에 해당 학생에게 서클의 질문을 미리 안내하고 준비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A 문제해결 서클 Q&A

Q. 문제해결 서클과 회복적 대화모임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문제해결 서클은 학급 전체가 함께 학급의 문제나 갈등 상황을 공동의 지혜로 해결하기 위해 모이지만, 회복적 대화모임은 사건의 관련 당사자나 목격자만 참여합니다.

Q. 문제해결 서클과 회복적대화모임은 어떤 상황에 적절한가요?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비난하거나 거친 욕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학급에서 많은 학은 학생이 힘들어 할 때는 문제해결 서클이 적절합니다. 반면에 1~2명의 학생이 소수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면서 욕을 하는 경우에는 회복적 대화모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회복적생활교육의 조치가 들어가야 할지는 교실에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 진행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3. 회복적 대화모임

회복적 대화모임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모임입니다. 회복적 대화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해 없이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진행자의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회복적 대화모임의 종류에는 회복적 서클, 회복적 정의 조정자 모델[15], 회복적 정의 컨퍼런스[16]가 있다. 그 중 비교적 간단한 진행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적 효과가 높은 도미닉 바터(Dominic Barter)의 회복적 서클(Restorative circle)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책자에서는 회복적 대화모임 중 회복적 서클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회복적 서클은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 체계로 갈등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의 진심이 드러나면서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15) 조정자는 조정에 참여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관심(interests)과 욕구(needs)의 언어로 바꾸어 반영해준다. 그리고 각 진행단계에 필요한 적절한 열린 질문을 선택하여 물어봄으로서 당사자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안내한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경청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조정자의 융통성 있는 태도와 기술 그리고 감각에 따라 진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갈등의 당사자와 가족이 중심이 된다.

16) 기본적으로 둥그렇게 앉아 진행하며 당사자들의 생각, 느낌, 욕구 그리고 행동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탐구해 들어가는 '회복적 질문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의 순서는 대개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 가족, 가해자로 이어진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회복적 정의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건 당사자들과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다.

■ 진행 순서[17)]

사전 대화 모임	• 진행자가 대화모임을 신청한 사람 그리고 갈등을 다루는 데 필요한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개별적(또는 필요에 따라 소그룹별로) 모임을 갖는다. 이때 충분히 들어주며 공감한다. • 갈등이 시작된 구체적 행동을 확인하고, 그 행동이 대화모임 신청자에게 갖는 의미를 공유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대화 모임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마지막으로 본대화모임에 대한 안내를 한 뒤, 최종 참여 동의를 받는다. 본 대화 모임은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도록 들은 내용을 말한 사람에게 다시 들려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	
본 대화 모임	• 갈등으로 일어난 행동으로 인해 본 대화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서로 말하고 듣는다. 그 일이 일어날 당시 어떤 마음이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참가자가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들었나요? 맞나요?,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상대방이 받은 영향은 무엇일까요? • 갈등이 일어난 행동을 한 이유를 듣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일이 일어날 당시 어떤 마음이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무엇을 알아주었으면 하나요? 진심으로 상대방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사후 대화 모임 약속 시간을 정한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나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	
사후 대화 모임	• 본 대화 모임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잘 진행되었는지 점검한다. 약속이 잘 지켜져서 지금 마음이 어떤가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더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정해진 약속이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지켜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조언하며 다른 행동을 모색한다.

17) 경기도교육청(2014),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너희가 모르는 곳에 갖가지 인생이 있다
너희 인생이 둘도 없이 소중하듯
너희가 모르는 인생도 둘 도 없이 소중하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모르는 인생을 사랑하는 일이다

– 하이타니 겐지로, 『외톨이 동물원』 중에서

긴급 개입을 위한 회복적 대화 모임

■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발생하는 학생들의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 아주 복잡한 갈등 상황이 아니라면 교사의 긴급 개입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회복적 질문과 대화 진행 방법을 통해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 중, 방과 후 등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활용 가능하다.

Tip

- 긴급갈등개입은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며, 진행자와 참가자가 함께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 좌석의 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고 둘의 정 가운데 진행자가 위치하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 진행과정[18)]

순	내용	진행자스크립트	
1	긴급상황 발견	상황인지 즉시개입	얘들아, 잠깐만, 무슨 일이니?
		대화 중재 동의 확인	(나는 ~ 선생님인데) 너희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그러는데 잠깐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괜찮니?** (중재동의 확인)

18) 2017.01.18. 한국회복적서클, 좋은교사운동 제공 내용 각색

2	**긴급개입**	대화 방식 소개	지금부터 서로 충분히 말하고 듣는 기회를 줄 거야.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랄게. 선생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하면서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줄게. 대신 이것만 지켜주면 돼. 이야기는 순서대로 말하고, 자기가 들은 말을 다시 말해주는 방식(반영)이야. 발언 기회는 공평하게 줄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		
3	**회복적 질문**	상호 이해	**A(B)학생에게**	**B(A)학생에게**	**A(B)학생에게**
			1단계 이 일과 관련해서 자기 심정이 어떤지 말해주겠니?	A(B)가 어떤 기분이 든다고 했는지 그대로 말해줄래?	그게 맞니?
			2단계 상대가 무엇을 알아주기를 바라니?	무엇을 들었니?	그게 맞니?
		자기 책임	3단계 (조금 전에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각자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니?	A(B)가 무엇을 원했다고 하는지 그대로 말해줄래?	그게 맞니?
			4단계 상대가 무엇을 알아주기를 바라니?	A(B)는 네가 무엇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하니?	그게 맞니?
		행동 계획	**A학생과 B학생에게 다시 질문하기**		
			5단계 앞으로 ~~~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니?		
			6단계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제안이나 부탁을 해줄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니?		
4	**대화지원 프로세스**	사용 시기	·판단의 말이 오고 갈 때 ·정보와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때 ·화자의 의도대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번역 지원	나는 조금 다르게 들었어. 내가 듣기에는 ~ (need, value, meaning)라고 들었어.		
		잃어버린 의미지원	나는 조금 더 들었어. 나는 ~ (story, need, value, meaning)도 들었어.		

Q&A 회복적 대화모임 Q&A

Q. 대화 모임을 진행함에도 감정을 풀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비난만 하면 어떻게 하죠?

대화 모임이 아이들의 부정적 감정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대화 모임의 원인이 되었던 일 이전부터 당사자들 간에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다면 한두 번의 대화 모임으로 모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모임을 통해 서로가 표현하지 않았던 마음들을 알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화 모임을 통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감정이 더욱 심해진다면 아직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대화 모임을 멈추고 개인 상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진행자의 진행과정이 미숙하여 대화 모임을 적절히 운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회복적 서클은 다른 회복적 대화 모임보다는 진행자(조정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당사자들의 말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하여 전달해주는 것에 유의하며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중립적인 위치를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대화모임을 진행자의 가치대로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읽기 자료

갈등상황 긴급 개입 클리닉[19)]

갈등과 폭력 사례들에 있어서 필자와 다른 동료 진행자들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 되는 것은 회복적 서클의 사전, 본, 그리고 사후 서클 모임이 각각 충분히 진행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실패나 힘든 수위도 낮아진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단체 사무실 혹은 직장 내에서 때때로 작은 논쟁이나 갈등상황의 발생으로 현장에서 즉시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개입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특히 담임교사인 경우 학급에서는 작고 소란스러운 다툼과 갈등이 수시로 일어나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회복적 서클의 본 서클 내용을 가지고 개입하게 된다. 실제로 학교 현장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는 이러한 본 서클 방식으로 긴급 개입하여 교사가 회복적 서클을 진행하는 비율이 일어나고 있는 전체 갈등 중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긴급개입 상황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진행자가 그 상황을 안전한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서 갈등 당사자들을 초대하고 최소한 30분 이상의 대화 시간이 가능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자들 중 갑자기 갈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지나가다 목격해서 짧게 개입해서 서로의 감정을 풀게 하고 진행자 자신은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경우로 이럴 때는 안전한 대화 공간이 없이 개입해 들어가는 경우이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혼란, 다툼, 갈등에 있어서 진행자 자신은 내면 상태의 중심을 세워서 자기감정을 급히 스캔하여 알아차리고 상대방들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개입하는 자신의 진정성과 의도를 확인하고 본 서클 방식을 응용하여 개입해 들어간다. 커뮤니케이션은 7% 언어, 38%의 억양, 그리고 55%의 몸-언어로 이루어지는 데, 당신이 짜증과 분노의 억양으로 개입하는 순간, 언어에 의존하는 방식은 갈등당사자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하거니와 짧은 개입의 순간은 공식적인 일반 회복적 서클 방식보다 진행자가 돌보고자 하는 강한 진정성과 집중된 진행 과정에 대한 몰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등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축하하는 것은 갈등을 잘 해결한 것에 대한 당신의 적극적인 의지이며, 이를 통해 그들이 다른 갈등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나서 스스로 그런 방식으로 해 보고 싶은 마음을 심장에 불어 넣어 주는 것이다. 갈등이 있을 때, 안 일어나게 하는 것보다는 갈등을 잘 풀 수 있게 그 원리와 경험을 새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19) 박성용(2018), 회복적 서클 가이드북, 대장간. 154~155쪽.

참고 자료

수원 동신초등학교 또래조정 운영 사례

1. 또래조정반 운영의 의미

회복적생활교육을 만나고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회복적생활교육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이 학급 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과 함께 하는 학급평화교육공동체 '솔향기 또래조정반'을 운영하였다.

학급 또래조정반은 4~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새 학년에 적응하고 친구들의 탐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3월 말에서 4월초에 학급별 남, 여 1명씩 선발하였다. 자발적 희망, 교사의 권유, 경쟁이 치열한 학급에서는 학급 아이들의 선호도 반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였는데 1년을 기다렸다 조정자가 된 아이가 있는가 하면 꼭 하고 싶다고 담당교사를 찾아와 부탁하는 아이도 있어 조정반 운영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

2. 학생들이 또래조정자를 신청한 이유

-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된 갈등 해결을 통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 자신도 힘든 일이 생길 때 감정조절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 신청하였다. 작년에도 또래조정자로 선출이 되었지만 자신이 없어 기권하였으나 나중에 또래조정자 역할을 보고 아쉬움이 들어 올해는 꼭 또래조정자가 되고 싶고 무엇보다 친구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잘 들어줄 자신이 있다.
- 평소에도 다른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또래조정자가 되어서 친구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 나는 또래조정자가 꼭 되고 싶다. 그 이유는 첫째 그 동안 주변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둘째 또래조정자가 되면 내가 주변사람들에게 더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나는 또래조정자가 되어 우리 반을 넘어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다투지 않고 친구와 친구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

아이들 나름 자신의 성장과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실제로 우리 반 조정자로 활동한 아이는 승부욕이 강해 항상 친구들과 갈등이 많고 화와 분노가 많았는데 조정자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는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성장한 모습을 스스로 만족해했고 그런 아이들 바라보면서 스스로 행복함을 느꼈다.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고 조정반 발대식에 초대하여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관심과 협조를 얻어내어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이 힘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지지자 역할을 해 주셨다. 조정자 단복에는 '네 옆에 내가 있어'라는 문구를 새겨 넣고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사용하면서 조정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기억하고자 노력했다.

신기한 점은 훈련과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나름 갈등조정을 잘 해낸다는 것이다. 학급 아이들도 조정자에게 갈등해결을 요청하고 합의서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학급구성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결됨을 느낄 수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사례 나눔과 의사소통 훈련을 하면서 지속적인 배움의 시간을 가졌는데 서로의 사례를 통해 조정과정의 문제점 발견, 어려움에 대한 공감, 선생님들에 대한 요청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학급 또래조정자 활동의 효과는 쉽고 용이한 접근성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억울하거나 화난 감정을 낮추어 갈등해결을 쉽게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이 형성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학급공동체 구성원 간에 관심과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갈등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갖는다는 점이다.

3. 실제 사례

〈또래조정 사례 1〉

1) 갈등상황

- 평소 A는 만화그리기를 무척 좋아한다. A는 B와 C의 이름을 사용하여 만화를 그렸다.
- B : 만화 내용은 그다지 기분 나쁘지 않았다. A와 C가 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A가 꺼지라고 해서 화가 났다.
- C :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여 만화를 그렸다는 것이 몹시 속상하다.
- A : 자신이 친구들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고 목을 조르는 C와 B에게 화가 났다.

2) 당사자 요구

- A : 두 친구에게 사과 받고 싶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
- B : A에게 사과 받고 싶다
- C : 만화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비난하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과 받고 싶다.

3) 합의서 내용

- A : 만화에 남을 비난하지 않겠다. 친구들 이름을 만화에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겠다.
- C : 다시는 목을 조르지 않고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대화로 해결하겠다.
- B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겠다.

〈또래조정 사례 2〉

1) 갈등상황

- 체육시간 경쟁 활동을 하던 중 남학생인 A와 B는 여학생인 C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서 속옷이 보이게 하고, C의 친구인 D의 옷을 잡아당기고 길을 못 가게 막았다.

남학생 A와 B는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닌데 억울하다. 여학생 C와 D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느껴 속상하다.

2) 당사자 요구 및 자발적 책임

- 여학생 입장 : 사과를 받고 싶다.
- 남학생 입장 : 오해를 풀고 싶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겠다.

3) 합의서 내용

- 여학생 : 괜한 오해를 하지 않고 물어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 남학생 : 경쟁 활동 할 때 옷을 잡아당기지 않겠다.

4. 마무리하며

교실 속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우리의 교실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다르게 바라보며 교사 혼자가 아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 본다. 갈등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본 아이들은 또 다른 갈등이 찾아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된다. 아이들은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존재이다. 서로의 입장을 안전하게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수 있다면 교실 안의 갈등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제3부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실천사례

1. 평화로운 삶을 가꾸는 백신교육공동체 성장이야기
2.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들이..
3. 삶의 전환을 위한 걷기 학교

1 | 평화로운 삶을 가꾸는 백신교육공동체 성장이야기

❶ "내가 안 그랬어요."와 "쟤도 그랬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3월이 왔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아이들도 새싹처럼 재잘거리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계절이 온 것이다. 새 친구들, 새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은 설레임과 긴장감으로 나름대로 존중과 배려, 방어와 공격 등의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고 익숙해지기 위한 자기만의 학교생활 방식을 탐색하고 강구한다. 학생들 간에 가벼운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로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내가 안 그랬어요."이거나, 또는 "쟤도 그랬어요."이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으로 책임 전가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이것은 그동안의 학생생활지도가 잘잘못을 가려내고 잘못한 학생에게 그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고 강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온 결과를 가장 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심신이 미성숙한 학생들 간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학생들은 갈등이란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오히려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배움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백신초등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 첫걸음으로 교사의 평화 감수성 및 회복적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우리는 회복적생활교육 실천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에 신뢰, 존중, 관용과 같은 가치와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3월, 새 학년의 시작과 함께 평화 감수성에 기반을 둔 평화로운 교실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연간 학급 경영 계획으로 실천하여 무엇보다 학급 안에서 친구 간에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맺는데 주력하였다.

학생들은 교실을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한 후에는 일상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감서클이나 문제해결 서클을 통해 충분히 평화로운 갈등 해결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교실 공동체가 평화를 기반으로 하여 관계가 맺어지고 공동체성이 강화되면 갈등의 발생 빈도도 낮아질뿐더러 웬만한 갈등은 진심어린 화해와 자발적 책임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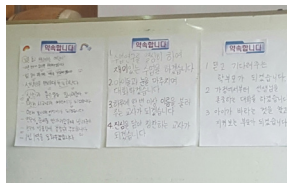
❷ 회복적생활교육이 뭐예요?

백신초등학교에서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들이 평화감수성과 공동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화교육과 회복적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2016학년도에는 교사들의 회복적생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회복적생활교육과 관련된 영역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회복적생활교육의 이해', '존중의 약속 세우기', '서클 운영하기', '긴급갈등개입과 문제해결 서클 진행하기',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대화', '평화 감수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활동', '평화로운 관계 맺기를 위한 교사힐링서클' 등의 주제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다.

2017년도에는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을 활용하여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로 기획하여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은 총 17개 활동주제(차시)로 학급에서 2주에 1차시 정도씩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교사들은 먼저 학년 학습 모임에서 활동주제를 실습해보고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공유한 후에 다시 학급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방식으로 회복적생활교육과 평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교사들이 평화로운 학급(학교)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연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주제	연수내용	활동장면
2월	새로운 만남 준비하기	새 학년 첫 만남 서클 진행하기(학생, 학부모)	
		가치카드를 활용한 존중의 약속 정하기	
3월	공감하고 소통하기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 놀이	
		자신과 타인의 느낌과 욕구 찾아 대화하기	
4월 ~ 12월	존중하고 배려하기	대화: 적극적 경청과 공감	
		긴급 개입으로 갈등 중재하기	
	평화 감수성 키우기	평화 감수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모험놀이 상담기법	
	관계 회복하기	문제해결 서클 진행하기	
		회복적 대화모임	
		평화로운 관계 맺기를 위한 힐링 서클	

❸ 회복적생활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복적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난과 처벌이 아닌 조정과 화해의 방식으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학생생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 경기도내 많은 학교에서 회복적생활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천해온 교사들은 회복적생활교육의 범위를 갈등당사자에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확장시켰다. 그리하여 평화로운 학급과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평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다듬어져서 체계적인 학생생활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2월에 추진했던 교육과정 워크숍 기간 중에 새 학년 첫 만남을 위한 준비 연수를 필수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여기에는 공감서클 진행하는 방법과 학급 구성원이 서로 친해

지기 위한 공동체 놀이, 학급 존중의 약속정하기 등의 연수가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새 학기 첫 만남 서클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공유하였고 학급별로 감정카드와 가치카드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회복적생활교육 관련 연수를 경험한 교사들은 3월 2일 학생들과의 첫 만남을 공감서클로 진행하는 등 학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실천의 폭을 넓혀 나갔다.

3월에는 학생과 교사만큼이나 학부모님들도 새 학급과 담임교사에 대해 긴장하는 마음을 갖는다. 3월 중순에는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데, 학부모 총회는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부담을 갖게 되는 만남이다 보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주체로서 학부모와 교사는 함께 마음과 생각을 합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학부모 총회가 끝난 후, 학급 담임교사와의 첫 만남을 위해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하고, 예쁜 화분으로 센터피스를 구축하고, 무지개 공을 토킹피스로 하여 공감서클로 진행하였다. 공감서클에 참석한 학부모님들은 “오늘 학부모 총회 오시면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올해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담임교사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요?”등의 질문에 서로 답하는 과정에서 ‘아! 다른 학부모님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올해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려고 하는구나.’하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긴장과 경계심 대신에 공감과 존중의 선물을 서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교사와 학부모 간에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였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회복적생활교육은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크게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세우기, 연결하기, 지키기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세우기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의 토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주로 학년 초에 시작되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을 위해 비전과 존중의 약속 정하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음은 학교에서 회복적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를 위한 연간 학교평화 프로젝트 일정이다.

월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위한 활동	비 고
3월	• 새 학년 첫 만남 서클(서클 안내, 자기소개) • 1학기 학급 존중의 약속 정하기 • 학급자치 서클(학급 임원 선출, 1인1역) • 학부모 총회(학부모 서클) /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4월	• 학급자치 서클(1학기 학급 평화의 날 계획) • 평화의 날: 서로 알아가는 공동체 놀이 활동	
5월	• 학급자치 서클(1학기 학급 행사활동 관련) • 평화의 날: 사랑과 감사 전하기(공감서클)	
6월	• 학급자치 서클(학급 존중의 약속 성찰하기) • 평화의 날: 대화(적극적 경청과 공감하기)	
7월	• 1학기 학기말 서클(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과) • 평화의 날: 대화(느낌과 욕구 반영하기)	
8월	• 2학기 학기 초 서클(여름방학 이야기) • 2학기 학급 존중의 약속 정하기 • 학급자치 서클(학급 임원 선출, 1인1역)	
9월	• 학급자치 서클(2학기 학급 평화의 날 계획) • 평화의 날: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공동체놀이	
10월	• 학급자치 서클(현장학습, 운동회, 학예회 계획하기) • 평화의 날: 학급 행사에 대한 소감나누기	
11월	• 학급자치 서클(학급 존중의 약속 성찰하기) • 평화의 날: 사랑의 언어, 자기 성찰 활동 •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12월	• 학급자치 서클(2학기 마무리 서클) • 평화의 날: 친구의 장점 찾기, 자기 칭찬하기	
2월	• 송별회 서클(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과, 격려와 응원)	

* 지속적으로 경청하기와 비폭력대화 연습기회 제공
* 반성문 대신 회복적성찰문 활용하기
* 갈등 발생 시 긴급갈등개입, 문제해결 서클, 회복적 대화모임 실행하기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연결하기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관계를 건강하게 다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이 단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갈등의 빈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즉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평화로운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면 얼마든지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연결하기를 위해서 다음의 활동들을 할 수 있다.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세우기는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 문화를 구축하여 공동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갈등 당사자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갈등을 통해 지지와 격려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학기 중에 언제라도 학교와 학급에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요할 때 진행할 수 있다.

교사들이 회복적생활교육으로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회복적 서클이다. 즉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세우고, 연결하고, 지키기 위한 모든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활동은 서클이라고 할 수 있다. 서클 방식의 대화 모임을 공감서클, 공동체서클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기소개, 친구사귀기, 학습, 스트레스, 꿈과 비전, 의사소통, 가족, 금연, 현장학습 등 무궁무진한 주제로 학급에서 학생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고 있다.

교사공동체 안에서도 교사로서의 삶을 서로 위로하고 동료 간의 지지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사 서클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희망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으며, 어떤 서클이든지 서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클의 목적에 부합하는 회복적 질문이 준비되어야 한다.

❹ 학부모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3월 학부모님들과의 첫 만남이 공감서클로 이루어지면 담임교사의 교육철학이나 학급운영에 대한 계획 등을 의미 있게 공유하며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돕는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다. 학부모님은 공감서클에 1/N로 참여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옆에 앉은 학부모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한다.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공감서클을 기획하여 운영해볼 수도 있다. 가정에서부터 존중과 배려, 공감과 소통을 익히고 자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본교에서는 희망하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가족 간에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족공동체 만들기'라는 가족공감서클 체험 연수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가족공감서클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와 방법의 예시이다.

구 분	내 용	
가족서클의 구성	1) 공간 : 센터피스 구축하기 2) 의식 : 시작과 끝을 알리는 메시지 3) 규칙 : 존중의 약속 4) 토킹피스 : 존중의 대화를 위한 도구 5) 진행자 : 공감 질문, 회복적 질문 6) 대화 방법 : 적극적 경청과 존중의 대화	
공간 열기	1) 침묵으로 초대하기(음악) 2) 가족서클 안내 및 상태 점검하기 3) 토킹피스의 의미 이해하기 4) 여는 질문 또는 시 함께 읽고 나누기	
공감 질문	1) 오늘 하루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은? 2) 오늘 하루 일과 중 가장 후회되는 일은?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적 질문	1)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 이 일로 가장 힘들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3)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4)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5) 가족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간 닫기	1) 지금 현재의 느낌 공유하기 2) 닫는 질문 또는 시 함께 읽고 나누기	

또한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언어』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이지만 성격과 개성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의 시작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평소 부모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족회의 방식 대신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의견)를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공감서클을 진행하였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의 어려움에 눈물로 공감하면서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효과를 실감하였다.

❺ 평화로운 교실에서 사는 아이들

비난과 통제의 교실에서 꾸중을 듣고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 자란 아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반면에 평화로운 교실에서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학교와 학급은 학생들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면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이다. 이제 회복적생활교육은 갈등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던 것에서 그 영역을 더 확장시켜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화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회복적생활교육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관계 맺기를 위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연결하고 지키는 모든 활동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학생들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공동체를 위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1/N로 부담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 다시 연결되는데 기여하게 한다. 이와 같이 회복적생활교육이 새로운 학생생활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토대가 된다면 학생들은 갈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들이..[20]

❶ 회복적생활교육과 만나다

아침에 학교로 올라오는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웃음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꽃이 피어있고 신록이 우거져 있다가 단풍들어 떨어지나 싶으면 하얀 눈이 내린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교의 아침은 오늘도 무척 다양한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으로 가득 차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검은 안경과 군복차림의 헌병, 학교 선생님, 지킴이 선생님, 학부모 폴리스가 학생들과 어우러져 절도 있는 밝은 인사로 등굣길을 연다. 교문을 지나 학교로 올라오면, 학생자치회와 대의원회 소속 학생들이 '어서 와~ 후배들아! 만나서 반가워'를 외치며 환호도 보내주고, '마음은 자유롭게, 교복은 반듯하게'를 외치며 교복을 바르게 입은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는 사진을 찍기도 한다. '선생님 존경합니다'와 '제자들아 사랑한다'라는 말과 함께 교사와 학생이 서로 안아주면서 본관으로 올라가다보면 운동장에서는 벌써부터 축구경기의 열기로 뜨겁다.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멋진 피아노연주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당구대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 학생들이 보인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올라간 3층에서는 아침부터 탁구경기가 한창이고, 4층 체육관에서는 아침틈새스포츠 농구경기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활기차고 다양한 모습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에는 학교폭력 사안도 많다. 선생님들은 방학기간에도 쉼없이 이어지는 사안의 처리와 하루에도 몇 건씩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로 힘들어 하셨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년도 혁신공감학교 선택과제 선정을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 단위와 업무부서별 단위, 학년별 단위, 교사전체토론회 등 여러 차례 토론을 진행한 결과, 학생 사안 발생 후 처리에 급급하기보다 예방에 집중하여 학교의 문화를 평화롭게 만들어 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러한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학교평화 프로젝트, 회복적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선택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만나게 된 '우리 학교'와 '회복적생활

20) 정현종(2015), 섬-시인의 그림이 있는 정현종 시선집, 문학판, 33쪽.

교육'과의 만남에 대한 것이다.

❷ 준비하기

공동체 논의를 통해 정해진 아래의 운영 목적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는 겨울방학부터 진행되었다.

〈 목암중학교 회복적생활교육 운영 목적과 방침 〉

목적	방침
• 학생과 교사의 평화 감수성 향상 • 학급의 평화로운 하부구조 구축 • 교사의 회복적생활교육 실행능력 제고 • 존중과 배려, 관계와 책임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구축 • 학생이 등교하고 싶어 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 회복적생활교육으로 학급 운영하기 • 교사의 회복적생활교육에 대한 이해 높이기 • 학기 초 부터 학생교육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실행능력 강화하기 •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으로 평화 감수성을 향상시켜 학생을 갈등해결의 주체로 세우기 • 회복적생활교육의 공동연구 및 공동실천을 위한,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으로 학교 내 갈등을 회복적생활교육으로 풀어 갈 기반 마련하기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유관기관과의 여러 차례 연락을 통해 연수일정을 조정하고, 교육내용을 조율하였으며,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선생님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학생들에 대한 평화교육이 방과 후에 실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부모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가정통신문을 준비하였다.

[교사, 회복적생활교육 전문가 되기]

수업과 학생생활교육, 행정업무와 갖가지 민원의 처리 그리고 학생사안의 마무리까지 학교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어지는 전쟁 같은 시간 속에서도 선생님들께서는 2시간에서 때로는 4시간까지 기꺼이 함께 해주셨고, 그 안에서 웃음과 마음을 나누며 혼자가 아님에 대한 감사와 안심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회복적생활교육 교사연수는 이론적 배경으로 시작하여 실제 교실에서 학생 교육에 적

용시키기 위한 실행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연수내용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계획 진행되었다.

〈 목암중학교 회복적생활교육 교사연수 운영 〉

- **운영 대상 : 전체 교사**
- **운영 목적**
  - 교사의 평화 감수성 향상
  - 교사의 회복적생활교육 실행능력 제고
  - 회복적생활교육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 **운영 방침**
  - 본교 교사 전원 참석
  - 본교의 특수성과 현재성을 반영한 맞춤 교육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심화하여 운영
  - 실제 교실에서 학생 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한 실행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
- **운영 내용**

  1단계 : 회복적생활교육 패러다임 이해하기 –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생활교육 패러다임
  2단계 : 회복적생활교육 실시 능력 배양하기 – 존중의 약속 만들고 지켜가기
  3단계 : 회복적생활교육 실시 능력 제고하기 – 서클 운영을 위한 질문 만들어 실행해보기
  4단계 : 회복적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하기 – 학년별 맞춤 회복적생활교육 실제

회복적생활교육에 대한 흐름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열심히 잘 들었다'정도의 반응을 주셨고,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의 연수 중 가장 흥미로웠다.', '이번 연수는 연수로 끝내지 않을 것 같다.', '교실에서 한 번 해보고 싶다.', '마침 우리 반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 고민이었는데 오늘 연수 내용을 적용해 해결점을 찾아봐도 될 것 같다.', '한 번 더 들어도 될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연수 중 스마트폰을 한 번도 만지지 않고 집중한 최초의 연수였다.'등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주셨다.

[학기 초, 학급별 회복적생활교육으로 평화롭게 하나 되기]

여러 부서의 사업을 다음으로 미루면서까지 예산을 마련하였지만, 학기 초(3월)에 진행된 학급별 맞춤 회복적생활교육(각 학급별 특수성과 현재성을 반영하여 진행)은 1학년과 2학년의 21개 학급만 진행할 수 있었다. 아쉬웠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자족감으로 다독일 수밖에 없었다. 거의 3월 한 달 내내 평일 방과 후 2시간을 온전하게 평화교육으로 진행해

야 했기에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학교의 평화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교를 운영하신 교장·교감선생님, 각 학년부장님을 위시한 학년부의 적극적 협조, 좀 바빠 보이면 같이 하자시며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신 부장님들과 교육행정실의 적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인권안전부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사실은 선물을 받은 것도 몰랐었는데, 학년말에 교육혁신부장님이 '우리 학교 선택과제 운영 잘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했으니 우수사례로 한 번 제출해보자.'고 하셔서 보고서 작성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되었다.

〈 목암중학교 학기 초(3월) 학급별 회복적생활교육 운영 〉

- **운영 대상 : 1·2학년 전 학급(21개 학급)**
- **운영 목적**
  - 학생의 평화 감수성 향상
  - 학급원 상호간 심리적 지지체계 마련으로 평화로운 학급 하부구조 구축
  -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구축으로 학생이 안전하며 등교하고 싶어 하는 학교문화 조성
- **운영 방침**
  - 담임교사 및 학급원 전원 참석
  -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안내 후, 방과 후 2시간 실시
  - 각 학급별 특수성과 현재성을 반영한 맞춤 교육내용 운용
  -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화교육으로 서클 운영

회복적생활교육 교사연수	회복적생활교육 교사모임	학기 초 학급별 서클 운영

❸ 성장하기

학기 초 부터 회복적생활교육을 교과수업과 생활교육에 실제 적용하기에는 사실 연수로만은 좀 부족한 감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 적용하고는 싶지만 실행하기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선생님을 도와가며 함께 성장하고, 학교 내 갈등을 회복적생활교육으로 풀어갈 실행능력을 제고하여 실천해가기 위해서 예전부터 뜻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새롭게 합류해주신 선생님들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복적생활교육 교사모임'을 운영하였다. 타학교로 순회를 나가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과 수시로 발생하는 학생 사안으로 운영일을 바꾸어 어렵게 모여야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동료교사와 함께 웃음과 눈물을 나눌 수 있었던 38시간의 시간들은 '공동연구 및 실천으로 함께 성장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남았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학습공동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교사만의 구성체가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들의 학습공동체와 한때 함께 했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 동료교사들 그리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많았던 갈등 상황과 텃밭이 모두 회복적생활교육 교사모임의 구성체가 아니었을까?

〈 목암중학교 (회복적생활교육)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 **운영 대상 :** 회복적생활교육에 관심 있는 본교 교사 10인
- **운영 기간 :** 2017년 4월 1일 ~ 2017년 12월 4일(총 38시간)
- **운영 목적**
  - 회복적생활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사 개인의 실행능력 제고
  - 회복적생활교육의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는 동료교사와의 공동 성장
  - 회복적생활교육의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여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 학생생활교육 당면문제에 대한 '공동탐구'와 '협력적 공동연구', '공동실천'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운영 내용**

차시	일시	영역	활동내용	시간
1	4.12.(수)15:30~17:30	주제탐구	'학교혁신정책 이해자료'정독 및 토론	2
2	4.19.(수)16:30~18:30	공동연구	새 학기 서클 질문 만들기 및 진행 실습	2
3	4.25.(화)12:30~16:30	공동연구	독서토론『스피릿 베어』, 『회복적생활교육 학급운영 가이드북』 적용 및 관련 안내문 만들기	4
4	5.17.(수)15:30~17:30	공동연구	학급조회종례를 대신하는 체크인·체크아웃 서클 질문 만들기 및 진행 실습	2
5	5.24.(수)16:30~18:30	공동연구	서클로 진행하는 학급단합(신체놀이를 포함한 구성 및 진행 실습)	2
6	6.07.(수)16:30~18:30	공동실천	서클로 해결하는 학급갈등(어항서클 운영)	2
7	6.14.(수)16:30~18:30	공동실천	선도위원회 교육조치 마무리 서클 운영	2
8	6.28.(수)16:30~18:30	연구결과· 실천 공유	1학기 학습공동체 컨퍼런스 참석	2
9	8.23.(수)15:30~17:30	공동연구	교사친목서클 질문 만들기 및 진행 실습	2
10	9.04.(월)15:30~17:30	공동연구	문제해결대화모임 1대2 진행 실습	2
11	9.13.(수)15:30~18:30	공동연구	문제해결대화모임(갈등상황) 질문 만들기 및 진행 실습	2
12	9.18.(월)15:30~17:30	공동실천	선도위원회 교육조치 마무리 서클 운영	2
13	9.25.(화)12:30~16:30	공동실천	일탈행동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서클 운영	4
14	10.25.(수)15:30~17:30	공동연구	교육과정과 서클 연계하기	2
15	11.27.(월)15:30~17:30	공동연구	직면한 생활교육 관련 문제 나누기 및 해결방법 모색	2
16	11.22.(수)15:30~17:30	공동연구	교사지지서클 질문 만들기 및 진행 실습	2
17	12.04.(월)15:30~17:30	연구결과· 실천 공유	2학기 학습공동체 컨퍼런스 참석	2
연수시간 계				38

❹ 열매 맺기

시작할 때의 우려는 진행 과정의 협력 속에 기분 좋은 변화로 바뀌어 갔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학급 내 생활교육 문제나 교과수업에서 발생한 학생과의 갈등 상황들이 교사에 의해 회복적생활교육의 관점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서클을 운영하는 교사의 수가 늘어갔고, 문제 상황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학생사안 중 가장 까다롭고 난감한 관계성 문제들이 회복적생활교육으로 해결되기 시작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모임에서는 학급 내 발생한 문제 상황을 서클로 풀기 위한 협력적 개입을 필두로 선·후배 간에 발생한 학년 간 학교폭력사안의 갈등해소모임 개입, 선도위원회 교육조치 마무리 서클 운영, 일탈행동 재발 방지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서클 운영, 관계형성을 위한 사제동행 텃밭 가꾸기 등 학교 내 갈등 상황을 회복적생활교육과 회복적 관점으로 풀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적 실천을 시작하였다.

학급 내 갈등 해결-어항서클	사제동행-텃밭 만들기

구분	운영 결과
학기 초 학급별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 학급 내 갈등문제 감소** - 2016학년도 1분기(3.4.5월) 학급 내 갈등문제로 학교폭력 발생 : 14건 중, 7건(50%) - 2017학년도 1분기(3.4.5월) 학급 내 갈등문제로 학교폭력 발생 : 14건 중, 1건(7%) → 전년도 대비 6건, 47% 감소 - 2016학년도 학급 내 갈등문제로 학교폭력 발생 : 39건 중, 19건(49%) - 2017학년도 학급 내 갈등문제로 학교폭력 발생 : 39건 중, 11건(28%, 기준일 : 2017.11.13.) → 전년도 대비 8건, 21% 감소
교사 연수 및 전문적학습 공동체 운영	**• 학교 내 갈등, 회복적생활교육으로 풀어내기** - 학급 내 발생 문제 서클로 풀기(학급서클 6회 운영) - 학부모와 ○○위원과의 갈등해소모임 운영(1회 운영) - 선도위원회 교육조치 서클로 마무리하기(2회 운영) - 관련 학생 및 학부모 간 갈등해소모임 운영(1회 운영) - 일탈행동 재발 방지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서클 운영(1회 운영)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를 위한 대화모임 (2회 운영) - 선·후배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사안 갈등해소모임 운영(학년부 협조, 1회 운영) **• 사제동행, 목암 텃밭 운영하기** - 수확의 기쁨을 통해 노력의 소중함 체험하기 - 노작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으로 일탈행동 예방하기 -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사제동행으로 학생과 교사 간 친밀도 높이기 - 수확물 나눔의 시간으로 학교에 대한 즐거운 기억 만들기(삼겹살 데이 운영) **• 공부, 서클로 하기** - 관련 교과 : 한문 - 관련 단원 : '何花最好' - 왕비의 자질 - 적용 형태 : 본문 내용 학습 후, '리더의 자격'에 대한 자기생각 나누고 친구 생각 공유하기 - 적용 효과 → 경청을 통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 내면화 → 학습자 전원이 동등한 기회로 수업에 참여함 → 집단 지성을 통한 사고의 확산이 이루어짐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곧, 한 사람의 일생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을 가지고 오는 일이기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하는 정현종 시인의 시는 읽을 때 마다 늘 나를 돌아보게 한다. 이런 생각은 '내가 만나는 학생들의 마음이 부서진 채로 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미 다 부서진 채 와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만나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만약 나와 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 교사가 있다면, 그것의 답은 '회복적생활교육'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회복적생활교육과 만나 더디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 지금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부서진 마음과 닿아 있나요? 회복적생활교육과 만나세요.
부서진 마음에.. 더디지만, 평화가 깃듭니다."

3 | 삶의 전환을 위한 걷기 학교

❶ 걷기학교란 무엇인가?

걷기학교는 걷기 멘토교사 1인과 학생 한명이 한 조가 되어 걷고, 침묵하고, 대화하면서 자신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자연 속에서 열리는 들판의 학교다. 작게는 두 사람부터 많게는 10명 내외의 사람들로 걷기학교가 구성된다.

걷기학교에서는 산과 들, 강과 바다가 교실이자 선생님이며, 걷는 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함께 걷는 교사는 친구이자 동료인 동시에 아이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멘토가 된다. 걷기학교에서의 걷기는 단순한 이동행위로서의 걷기 혹은 특정한 목표지점에 가닿기 위해 전진(前進)하는 걷기라기보다는 자신 또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홀로 사색하기도 하고 멘토교사와 함께 대화하기도 하면서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사색의 과정으로서의 걷기다.

걷기학교는 거기에 참여한 학생이 누구든, 어떤 사정으로 오게 되었든, 온전히 환대하고 존중함으로써 아이들이 기존의 관계와 시간 속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존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기쁘게 경험하는 곳이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걷기가 유발하는 자유로움과 생명력, 신뢰할 수 있는 멘토교사와의 편안한 대화가 주는 격려, 서클에서 가슴으로부터 서로의 진심을 나눌 때 경험하게 되는 연결과 치유, 이것들이 걷기학교에서 씨줄과 날줄로 서로 교차하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향해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

❷ 걷기학교의 교육과정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 걷기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걷기, 서클대화모임, 공동생활의 3요소로 구성된다.

1) 걷기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걷기란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애매한 짧은 거리 혹은 자동차가 갈 수 없는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이동목적으로서의 걷기가 대부분이다. 어른들 또한 걷기가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두루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바삐 돌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왠지 비효율적이고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린 걷기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걷기학교에서는 차로 가면 아주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그 편리함과 효율성을 포기한다. 오히려 자동차를 이용하면 금방 가닿을 수 있는 거리와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 놓고 천천히 느리게 그 공간을 즐기며 유람하듯 혹은 놀이를 하듯 걸어 나간다.

지도 속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삶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이 공간은 처음에는 가히 두려움 그 자체요, 걷기란 마지못해 해야만 하는 노동의 일환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걷기에 대한 이런 초기 저항감은 길을 나서자마자 이내 사라지기 시작한다.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스치듯 관망하던 그 공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자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해져 있던 삶의 동선에서 벗어나 지천으로 널린 맑은 공기와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걷다 보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관계와 의무들로부터 풀려난 듯한 자유로움과 해방감이 뜻밖의 선물처럼 찾아오게 된다. 이 변화를 자각하게 되면 이제 걷기 행위는 '걷는 휴가'(walking holiday)로 전환된다.

걷기학교는 참가자들, 특히 학생들이 걷기에 대해 가진 저항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코스가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걷기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장거리 코스를 피하고 아이들이 맑은 공기, 신선한 바람, 멋진 풍경을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청정한 지역을 선택하여 걷는 것이 좋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하루에 15km 정도를 기준으

로 삼고 참가자들의 상황에 따라 조절한다. 같은 거리라 해도 높은 산이나, 고개를 넘는 코스보다는 낮은 구릉, 평원, 해안을 지나는 올레길, 둘레길, 해파랑길 등의 코스가 더 좋다. 높은 산이나 고개를 넘느라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보면 멘토교사와의 대화, 자신에 대한 사색과 성찰의 시간, 편안하게 자연을 재발견하는 기쁨들도 모두 놓치기 쉽다. 물론 계절과 날씨, 또 참가자들의 성향이라는 변수에 따라 각자가 경험하는 깊이는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걷기학교에 참가한 이들을 깊이 환대하고, 길 위에서의 발걸음들을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한 모든 길들은 다 아름답다.

2) 서클 대화모임

걷기학교는 국토 대장정 혹은 전교생 OO산 종주 등의 걷기활동과 달리 서클 대화모임이 가능한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로 참가인원을 제한한다. 서클 대화모임은 걷기와 더불어 걷기학교의 두 가지 큰 축이다.

서클은 누구나 가슴으로부터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듣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고 공감으로 듣는 온전한 연결의 대화공간이다. 서클 대화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분리되지 않으며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준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와 지혜로부터 배운다. 서클의 관계는 평등하며 모든 사람이 서클의 주인공이다.

학교현장에서도 서클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학교공동체성이 강화되는 유익이 일어나지만 걷기학교에서의 서클이 더더욱 큰 비중을 갖고 활용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오전에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그 날 저녁에 깊게 나눌 대화의 질문[21]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가진 장점 3가지'혹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었던 경험은?'등과 같이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을 주로 제시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 아이들이 걷다가 심심해질 때 혼자 생각해 보거나 멘토교사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기도 함으로써 교실에서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한 나눔을 할 수 있다.

둘째는 걷기를 시작하면 서서히 몸이 따뜻해지다가 충분히 걷고 난 후에는 몸이 활짝 열

21) 서클을 위한 질문 모음 참고

리게 된다. 경직되어 있던 몸이 풀리고 나면 생각이 넓어지고, 기분은 살짝 상기되며 정신은 맑아진다.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활짝 열리게 된다. 서클 대화모임 전에 이보다 더 좋은 워밍업 활동을 찾아볼 수 있을까?

셋째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라도 작은 서클을 수시로 자연스럽게 열 수 있는 그 유연함에 있다. 걷기 전에 서로의 기분과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 인 서클, 걷다가 피곤할 때 잠간 쉬면서 나누는 휴식 서클, 경치가 멋진 곳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하는 축하 서클 등등 걷기학교의 매 순간 순간들이 서클로 깊게 이어지고 연결된다.

3) 공동생활

학생들 중에 자신이 속한 학급이나 학교를 소속 집단이 아닌 공동체로 경험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저런 사연을 안고 걷기학교에 오는 아이들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일단 걷기학교에 오면 - 이들은 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온 아이들이므로 - 자신이 신뢰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교사와 함께 여러 날을 동행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공동생활이 시작된다.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같은 풍경을 보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고 하는 경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련의 공동생활을 통해 아이들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

길지 않은 여정의 걷기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걷기학교에서 진한 공동체 경험을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휴대폰의 부재와 관련이 깊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한 학생들만 걷기학교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손에서 휴대폰을 거의 놓지 못하던 아이들은 처음에 무척 힘들어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휴대폰의 부재는 아이들이 그동안 스스로 갇혀 있던 디지털의 세계를 빠져나와 자신의 몸으로 직접 자연을 만나고,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풍성한지를 실감하고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기회를 열어준다.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전체 서클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중간 중간 마음 열기

놀이를 해주면 좋다[22]. 가령 교사 연수에서 한 번쯤 접해 봤을, "바람이 붑니다"나 "동전이 누구 손에 있는지 찾기" 정도만 해도 아이들의 입에서는 웃음이 그칠 줄 모른다. 또 집이나 학교에 있는 보드게임 세트를 몇 개만 챙겨서 가면 아이들은 교사가 없어도 숙소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놀이를 찾아내고 즐긴다.

걷기학교에서는 미리 공지된 주요일정들을 제외하고,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결정들을 참가한 아이들의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려고 한다.[23] 그래서 사전답사를 할 때도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식당들이 적합할지 복수의 선택지를 파악해두거나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모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 주는 것 1위가 여행, 2위가 걷기라고 한다. 걷기학교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결합되어 있다[24].

짧은 한 번의 걷기학교 경험으로 아이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순 없지만 아이들은 걷기학교를 통해 그 동안 자신들에게 익숙해 있던 삶의 방식과는 매우 다른 차원의 관계 맺기, 소통하기, 어둡고 시끄러운 피시방 대신 밝고 고요한 곳이 주는 자연의 힘 느끼기,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자신의 몸 예찬하기, 건강하게 놀기.... 등등의 새롭고 건강한 대안적 삶의 방식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회복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사실은 '걷기 자체가 가장 큰 놀이'이므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23) 회복적생활교육의 중요개념 중 하나인 아이들에게 권한 부여하기(empowerment)
24) 걷기학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걷기의 유익과 즐거움이라거나, 자신의 두 발로 걸으면서 직접 몸으로 세상을 만나는 여행의 묘미를 잘 알지 못한다. 걷기학교 참가후기에 쓴 아이들의 글을 읽으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Story

강릉으로 1기 걷기학교를 갔을 때의 일이다. 오후 내내 내린 비를 맞고 걸어서 목표지점인 사천해변까지 갔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녁메뉴로 라면 이야기가 나왔다. 패스트푸드 금지라는 무언의 대원칙이 있긴 하지만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또 그 비를 맞으며 해변에서 해수욕까지 하고 돌아오던 길이라 모두가 동의를 했다. 대신 그냥 라면이 아닌 해물 라면으로! 그길로 아이들과 함께 수산 시장으로 가서 장을 보았다. 아이들은 그 날 저녁 먹음직스럽게 익은 새우와 꽃게가 들어간 해물 라면과 함께 삶은 바다 다슬기를 신기한 듯 파먹었다.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쉽사리 잊혀 지지 않을 특별한 저녁메뉴로 인한 추억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비록 걷기학교 일정표나 공식적인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 소소한 공동생활의 경험들이 여행을 더 풍성하게 하고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❸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교사의 눈에 한 번 더 띄는 아이,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아이, 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이, 걷기학교는 어느 아이에게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곳이다.

아이와 함께 걷다 어느 지점에 머물면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걸으면서 보이는 풍경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소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 그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한다. 때로는 교사와 아이가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그 길 자체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

교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그 아이와 함께 걷는 거라면 누구나 괜찮다. 어느 순간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아이에게는 선물이 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장소가 될 것이다.

(1) 매사 무기력한 아이
(2) 학습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의욕이 없는 아이
(3)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아이
(4) 교내 규범을 쉽게 어기는 아이
(5) 폭력적인 행동이 보이는 아이
(6)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
(7) 친구 관계가 어려운 아이

위 (7)가지 항목의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의 변화를 위한다면 걷기학교에 손을 내밀어 초대해 보자.

Story

학기 초에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집에 가기 싫어하는 반 아이를 상담한 후 1기 걷기학교에 초대했다. 2박 3일 함께 먹고, 걷고, 이야기 하는 중에 아이가 자라온 과정을 충분히 듣게 되었다. 좋은 풍경을 보고,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면서 그 아이는 내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난 충분히 들으며 공감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걷기는 그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과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시간을 허락해주었다. 걷기학교를 다녀온 후 어머니와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 갈등을 이겨낼 힘과 지지해 주는 멘토를 얻은 듯 했다.

Story

고등학교 1학년, 반에서 성적 1등으로 들어온 아이가 학기 중반 즈음 지나자 무단지각이 잦아졌고, 학교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내리 잠만 자는 모습이 보였다. 학교생활 때문에 상담을 몇 번 진행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학생의 변화가 필요해 걷기학교에 초대했다. 아이는 선뜻 가겠다고 했고,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 2박 3일을 함께 걸었다. 이 아이의 '무기력증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나의 고민이었다.

걸으면서 아이의 다른 면을 보았다. 걷기를 좋아하며, 여행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걸으며 내내 밝은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걷기학교에 참여한 동생들에게 점심을 먹은 후 음료수를 사주는 형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아이와 대화를 하다 어머님의 부재 후부터 지각이 잦아지고, 게임에 빠지고, 무기력해 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걸으며 아이와 진로목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걷기학교 후, 지각은 줄어들었고, 학교생활에 활력을 되찾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한 번 걷기의 힘을 믿게 되었다.

❹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1) 교사 모집

· 아이들에게 걷기를 통해 변화와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은 교사 모집

2) 아이 선정 및 초대

① 부모와 아이에게 걷기학교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초대

② 지켜야 할 규칙(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필요

③ 교사와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걸음을 설명

3) 장소 선정

① 아이들과 함께 걷기에 좋은 장소 선정

② 계절과 날씨에 따른 장소 선정

4) 사전 모임

① 날짜 및 장소 선정

② 함께 걷는 학생들 정보 공유와 어떤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줄지 나눔

③ 교사 역할 분담

· 예산 계획 세우기

· 차량 및 교통수단 예약, 숙소 및 식당 예약

· 초대장 및 신청서 만들기

· 여행자보험 가입안내

· 식사 메뉴 선정 및 식사 재료 준비

· 저녁 프로그램 준비(공동체 게임 및 회복적 서클), 간식 준비

· 비옷 및 의약품 준비

④ 후원자 및 후원금 모집

· 학교에서 학교생활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한 교내 예산 가능 한지 확인

· 걷기 학교 프로그램에 후원할 사람이나 단체 모집

5) 사전 답사

① 숙소(방, 프로그램 장소 확인) 및 음식점 답사

② 걷는 길 안전 유무와 총 걷는 시간 확인

③ 걷는 길에 있는 화장실 유무 확인

Story

1기 걷기학교 준비모임을 통해 가게 된 강릉 바우길은 초여름에 걷기 딱 좋은 길이었다. 바닷가 옆에 있는 길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을 수도 있었고, 소나무 숲길의 그늘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었다.

참여한 선생님들께서 준비 모임을 통해 우리나라 여러 길들을 조사해 오셨고, 그 길들 중에 더운 날씨를 예상하여 강릉 바우길을 선택했다. 답사를 가서 바우길을 직접 다 걸어보진 않았지만 갈림길에서 입구와 출구를 확인하였고, 동선을 확인하여 식사 장소를 선정하였다.

학생들과 걷는 날에는 비가 와서 준비한 우의를 입고 걷기도 하였고, 사천해변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해수욕을 하는 기회도 가졌다.

준비가 미흡했던 것 한 가지는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이다. 다행이 오래 기다리지 않아 버스가 오긴 했지만 버스가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었기에 30~40분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

답사는 걷기학교에 참여할 선생님 모두 가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 일정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걷기 학교 초대장, 신청서, 신청서, 학생 서약서, 학부모 동의서, 참가 소감문 양식 준비

“걷기 학교”에 초대합니다

실크로드를 온전히 걸어서 횡단한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한 미래를 탐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걷기 학교는 자신의 꿈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을 허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걷기와 서클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와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걷기 학교는 출발 전 사전 모임과 걷기 모임, 사후 모임으로 구성되며 교육기관에서 다년간의 학생생활교육 및 상담 경험이 풍부하고 회복적생활교육에 대한 통찰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걷기학교 안내

1. 언제 : 0000년 0월 0일 ~ 0월 0일 (0박 0일) [사전모임 0월 0일 저녁 0시 (장소 -)]

2. 어디로 : (자세한 일정과 준비물, 유의사항 등은 사전 준비 모임에서 다시 안내합니다)

3. 대상 : 학교생활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학생 중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참가비 : 00,000원 (※ 후원 받아 지원합니다.)

5. 대상 및 인원 : 남학생 0명, 여학생 0명 (이번 걷기학교는 경기도 고양시 관내 거주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6. 접수 기한 : 0000년 0월 0일( ) 00:00(00000@email.com) (접수 신청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7. 접수 문의 : 000 (000-0000-0000)

※ 걷기 학교 신청 시 유의사항

걷기 학교는 걷기 멘토 교사 1인과 학생 한 명이 한 조가 되어 진행합니다. 극기를 위한 걷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걷기 전에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나누고, 걷는 동안 그 질문을 품고 걸으며 사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걷고 난 후에는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이 새롭게 느꼈거나 깨달을 것을 서클 방식으로 깊게 나누고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휴대폰의 사용은 전면 금지되며 걷기 학교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에 동의한 학생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걷기 학교 신청서

* 학생이 작성해 주세요.

인적 사항	이름		학급	
	생년월일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	
	건강상태	매우 좋음 / 좋음 / 좋지 않음		

자기소개하기

1. 걷기 학교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2. '걷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짧게 적어주세요.

3. "걷기 학교"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세요.

인적 사항	이름		학교		담당업무	
	생년월일		학교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기소개하기

1. 선생님께서 위 학생을 걷기 학교에 추천하신 이유를 간단히 적어 주세요.

2. 걷기 학교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보낼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주세요.

학생 서약서

[참가 학생의 약속]

- (본인 성명 기재) _____ 은(는) 걷기 학교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열린 마음과 진실한 모습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 (본인 성명 기재) _____ 은(는) 아름다운 자연 속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참된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걷기 학교 기간 동안 휴대폰을 반납하고 일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 성명 기재) _____ 은(는) 나의 멘토 선생님 및 함께 길을 걷게 된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걷기학교 기간 동안 우정과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가학생 _____ (서명)

학부모 동의서

다음 질문을 꼼꼼히 읽으신 후 해당란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 걷기학교의 취지를 잘 이해하였으며 저의 자녀의 걷기 학교 참가에 동의합니다.		
• 걷기학교 참여를 계기로 가정에서도 아이를 더욱 존중하고 아이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걷기학교 진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위급상황에 대한 처리는 걷기학교 진행팀에게 **결정을 위임**합니다.		
(개인정보 및 활동사진 활용 동의) • 프로그램 진행과 활동기록(활동사진)에 있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및 활동사진 활용에 있어 동의합니다.		

※ 진행팀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녀의 특이사항(질병, 체질, 개인특성 등)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 월 0 일 보호자명 _____ (인)

<걷기 학교> 참가 후기

제0기 걷기 학교: 0000년 0월 0일(0) ~ 0월 0일(0) 이름: ( )

1. 내가 경험한 〈걷기 학교〉는 ( )이다.
   - 왜냐하면 _____
   _____ 때문이다.

2. 〈걷기 학교〉중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_____

_____

_____

3. '걷는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거나 느낀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_____

_____

_____

4. 가장 먼저 〈걷기 학교〉에 참가한 선배로서 앞으로 〈걷기 학교〉에 참가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 마디만 남긴다면 무엇입니까?

_____

_____

_____

5. 〈걷기 학교〉에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_____

_____

_____

만족도 평가

1. 숙소는 어땠나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싫음	매우 싫음

2. 걷기학교에서 걸었던 (　　)에서 (　　)까지 가는 코스는 어땠나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싫음	매우 싫음

3. 숙소에서 했던 카드게임 활동과 서클 대화 모임은 어땠나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싫음	매우 싫음

내 손에 카메라가 있었다면 담고 싶었던 한 순간, 한 장면을 스케치해 본다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글로 써도 됩니다.)

(장면에 대한 설명)

서클을 위한 질문과 활동

[자기소개와 서로 알아가기]

-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분이나 상태는?
- 자신을 잘 표현하는 키워드 3가지는?
- 오늘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과 가볍게 하는 것 한 가지
- 나의 장점을 3가지만 꼽아보면?
- 최근에 내가 경험한 평화로운 순간은?
- 지난 한 주간 자신의 행동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행동은?)
- (글이나 시를 읽은 후에) 이 글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학교생활]

- 학교에서 함께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이유는?
-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손가락으로 표현한 후에) 내가 손가락을 ( )개 편 이유는?
- 손가락 2개에서 3개로 가기 위해 혹은 3개에서 4개로 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 내가 그 때 다르게 행동했었더라면 하는 행동은?
- 실수도 했지만 잘 극복했거나 멋있게 책임을 졌던 일은?
-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은?
-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은? 그 이유는?

[걷기]

- '걷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 나의 인생에서 오르막길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꼈던 순간은?
-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고마움(소중함)을 알게 되었던 순간은?
-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걸었던 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길은?
- 오늘 걸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혹은 풍경이 있다면?
-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했던 중요한 순간은?
- 걷기 혹은 걷기학교를 통해 얻어가는 유익이 있다면?
- 걷기학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은?

[비폭력대화 카드를 활용한 서클활동]

- 걷기학교에 오기까지 내가 느꼈던 느낌카드 3개를 고른 후에 자신이 왜 그 카드를 골랐는지 말하기 (카드의 개수는 인원과 시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평소 자신이 자주 경험하는 느낌카드 3개를 고르고 그 이유 알아보기
- 걷기학교를 통해 충족된 욕구카드 고르고 함께 나누기
- 상대방에게 했던 강한 말이나 강한 행동 이면에 있었던 나의 욕구 탐색하기

서클을 위한 시와 짧은 글들[25)]

[글을 읽고 난 후 서클 진행 방법]

1. 자발적으로 글을 읽어 줄 사람을 초대하거나 요청하기

2. 낭독이 끝난 후 잠시 침묵으로 초대하기

3. 질문하고 나누기1

- '방금 읽은 내용 중에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문장이 있었나요?'

4. 질문하고 나누기2

-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다가온 것이 있나요?

5. 공간 닫기

25) 이곳에 수록한 시와 글의 출처는 〈서클로 나아가기, 좋은교사 회복적생활교육센터 발간〉이며, 예시 자료이다. 서클 상황에 따라 다른 시나 글을 활용할 수 있다.

듣기란 자석과 같이 참 요상한 것

듣기는 자석과 같이 참 요상하게도 창조적 힘이 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끌려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이 어떤 치료의 광선을 내뿜는 듯

우리가 그들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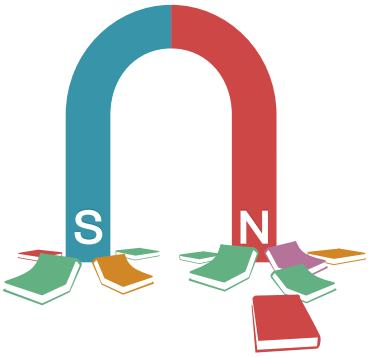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귀 기울일 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열어서 확장시킨다.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된다.

– 브렌다(Brenda Ueland, 여성운동가, 언론인이자 작가)



나는 알게 되었다

제니퍼 로페즈 올리베로

나는 알게 되었다:
숱한 패배로부터 이기는 법을
나의 미소는 나의 눈물들이 그려낸 것이다.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오직 하늘을 본다.
너무 자주 바닥까지 내려가 보았기에 매번 그럴 때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내일이면 다시 올라가리라는 것을.
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 때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나서야 내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당신과 함께 하게 된 이유를 분별하게 되면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게 된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함께 하게 된 이유는 대개
당신도 모르게 드러난 당신의 필요를 그가 채워주기 위함이다.
그들이 당신 앞에 나타난 이유는
당신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기 위함이며
육체적, 정서적, 혹은 영적인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이 보낸 선물일 수도…
아니 사실은 하느님이 보낸 선물이 틀림없다!!

사람들과 헤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인생경험으로
당신이 결코 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보여준다.

자기 자신 좋아하기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뿌듯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좋아하는 것이다.

훌륭하고 품위를 가진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은 기운을 돋게 한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에는 비할 바 못된다.

당신의 존중과 경외와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기쁨이다.
그러나 너 스스로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없으며, 다른 누구에게서도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

당신이 평생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바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당신이 결코 잃어버리거나 떠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 바로 너 자신이 정답이다.
당신 삶의 문제들에 대해 당신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이다.

– 조 코트 (Jo Cour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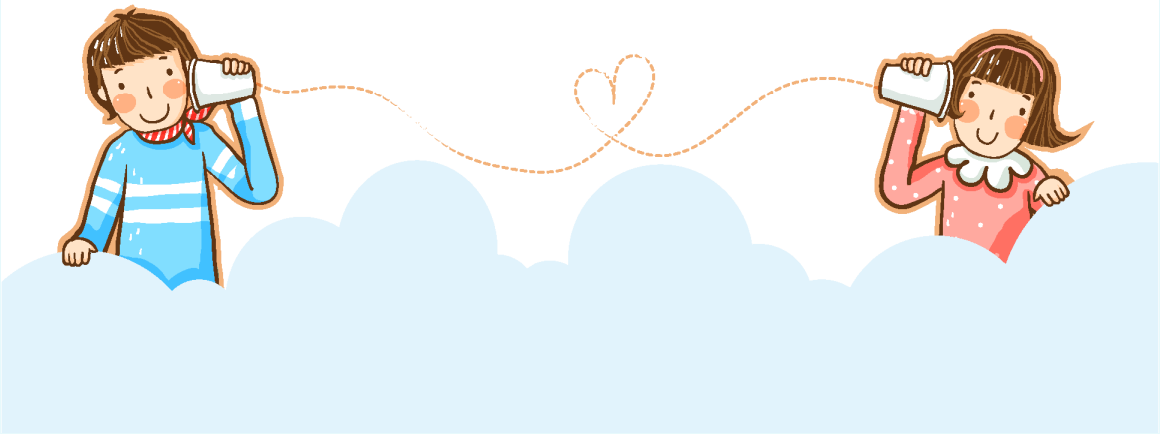
이야기가 당신을 만든다

모든 사람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언제나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이 되게 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어간다.

– 패트릭 로스퍼스 (Patrick Rothfuss) –



부 록

1. 학부모 총회 서클
2. 교사 공감 서클
3. 교사 자치 서클

부록

회복적 정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현장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서클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록'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회복적생활교육의 활동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활동명		이럴 때 사용해요
1	**학부모 총회 서클**	• 학부모 총회를 서클로 진행하고 싶을 때
2	**교사 공감 서클**	• 학년 단위 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단위로 교사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고 싶을 때
3	**교사 자치 서클**	• 교사들이 함께 모여 교육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1. 학부모 총회 서클

3월 학부모님들과의 첫 만남을 학부모 총회 서클로 시작하면 담임으로서의 교육철학, 학급운영에 대한 계획 등을 의미 있게 공유하며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서클의 1/n로 참여하여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학부모 총회 서클은 많은 학교에서 현장에서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준비물 :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환대의 센터피스, 의미 있는 토킹피스 준비, 배부용 학급운영 계획 프린트, 이미지카드 준비(솔라리움 카드, 프리즘 카드 등), 따뜻한 차, 맛있는 간식, 이름표
- 소요시간 : 50분
- 진행과정

① 환영 인사, 서클의 목적, 서클의 규칙 소개
② 서클진행
③ 학급운영 철학, 계획나누기

진행자 질문예시

- 학교에 오실 때 느낌, 기분은 어떠셨나요?
-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카드를 한 장 선택해주세요.
- 선택하신 카드를 서클에 보여주시면서 그 이유를 2분 이내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로서 가장 기쁘거나 보람된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하시는지요?
- 우리 아이를 위해 올해 꼭 해 주실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오늘 서클을 하신 소감을 간단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사진

Q&A 학부모 총회 서클 Q&A

Q. 학부모 총회를 서클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부모님들이 총회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을 알고 싶고 선생님과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총회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학교에 찾아온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의 일방적인 안내사항 전달이 아닌 소통의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잊고 살았던 자녀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는 따뜻한 대화의 시간이 만들어 진다면 학부모 총회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 총회 서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부모 총회 서클을 진행하면 눈물을 보이시는 학부모님들이 늘 계십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어려움, 그 어려움에 대한 공감은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연민과 지지와 협력의 힘이 생겨납니다.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사들도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학부모님들도 서로의 아이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공감을 통한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부모 총회 서클은 교육공동체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연결 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가 됩니다.

참고 자료

학부모 총회 서클 시나리오

연번	내용	진 행 자 스 크 립 트
1	환영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학년 ○반 담임 ○○○입니다. 총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부모 총회는 서클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올해 저희 반을 어떻게 평화롭고 행복한 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서클로 총회를 준비했습니다.
2	서클 소개하기	서클은 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앉아있습니다. 서클은 모두가 같은 거리에 공평하게 앉아서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듣는 대화 방법으로 아주 오래된 인류의 이야기 방법입니다.
3	토킹피스와 서클에 대해서 안내하기	하지만 원형의 대화를 모두 서클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서클에는 다른 원형의 대화에는 없는 토킹피스와 센터피스가 존재합니다. 앞에 꾸며진 센터피스는 우리가 모인 이 자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토킹피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상징물로, 이 것을 지닌 사람에게만 발언권이 있습니다. 모든 분에게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오늘 토킹피스를 지닌 분에게는 2~3분의 시간이 허락됩니다.
		그 밖에 안전하게 서클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토킹피스를 가진 사람만 말합니다. 두 번째, 토킹피스를 가진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경청합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듣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말하기 힘들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침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는 서클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건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서로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여기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이 안전하지 않으시면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의 이야기만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부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번	내용	진행자스크립트
4	여는 질문하기	오늘 우리는 처음 만났지만 'O학년 O반 학부모'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같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공동체란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교사인 저와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과 배려하면서 한 곳을 바라는 보는 평화롭고 행복한 학급 공동체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로 서클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을 좋아하는 □□ 엄마 ◇◇◇입니다" 소개하고 옆 사람은 "저는 ○○○을 좋아하는 □□ 엄마 ◇◇◇엄마 옆에 앉은 ○○○을 좋아하는 □□ 엄마 ◇◇◇입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린 후에 교사가 먼저 소개합니다. 교사의 소개하는 말하기 패턴은 이후에 말하는 학부모님들의 소개의 패턴이 되기도 합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패턴을 고려한 후에 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제와 관련한 대화 나누기	모든 분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나니 훨씬 더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　　)입니다.
		·**질문 예시** Q1 :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점,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Q2 : 현재 나의 아이에게 듣고 싶은 말은? Q3 : 나의 아이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Q4 : 아이와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는?
6	담임의 학급 운영 철학 나누기	저는 저희반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갈등이 있을 때 평화롭게 대화하면서 서로를 공감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반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함께 정한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급의 약속 준비]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이 바라시는 반은 어떤 반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방법 예시** 1. 가치카드, 그림카드, 느낌과 욕구카드를 센터피스에 비치해두기 2. 우리 반이 올해 어떤 학급이 되기를 바라시는 지 앞의 카드를 선택하셔서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거나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바람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7	서클에 대한 소감 나누기	오늘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서클에 대한 소감이나 느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8	서클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마무리 하기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할 수 있었음에도 학부님들께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연락해주세요. 올 한해 저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 행복한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9	안내하기	학급 대표 선출, 각 단체를 신청하신 학부모님들은 (　)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2. 교사 공감 서클

교사 공감 서클은 교사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경험 등을 주제로 구성원들이 쉽게 꺼내 놓을 수 없었던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치유됨'을 경험하면서 교사들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똑 마음열기

■ 어느 선생님의 고민

콩콩 활동하기

돌봄이 필요한 학급 운영 지원

- 준비물 : 토킹피스, 기록지
- 참여자 : 학년부장(진행자), 학년담임교사, 해당학급 교과담당교사
- 시기 및 시간 : 방과 후 학년 협의 시간
- 공간 : 구성원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
- 진행과정

① 여는 질문

- 최근 들었던 학생들의 반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② 서클 주제 나누기

- 오늘은 2학년 0반의 학급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③ 상황 파악하기

- 2학년 0반의 학생생활상황에 대해 우선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 2학년 0반의 수업상황에 대해 교과담당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④ 의견 나누기

- 학생생활상황에서 담임 선생님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 수업상황에 대해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특정한 학생 000에 대해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⑤ 의견 정리하기

- 진행자는 매 질문에 대한 의견제시가 한 번 끝날 때 마다 중요한 제안과 이유, 가치를 요약하여 참여자들에게 제시한다. 제시된 의견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 다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실천방안 구체화하기(예)

- 지속적으로 수업이 없는 시간 2학년 0반 수업 참관하고 수업 나누기
-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학급 서클 운영하며 학생들의 마음 이해
- 돌봄이 필요한 특정학생에 대한 상담시간 확보(상담실 연계)

• 담임교사의 교사로서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교사공감서클 운영

⑦ 교사들의 역할분담 및 세부 일정 정하기

⑧ 소감 나누기

활동 사진

곰곰 돌아보기

일정 기간 후 교사 서클을 다시 열어, 지난 교사 서클에서 이루어진 계획들의 진행상황과 변화를 함께 나누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내용과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나눈다. 필요하다면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교사 서클에 사용할 수 있는 질문 예시

단계	역할
여는 질문	• 나를 표현할 수 있는 4글자와 그 이유는? • '학교의 3월'하면 떠오르는 것은? • 오늘의 기분을 맛으로 표현 한다면? •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늘 내가 포기한 것은? • 오늘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는?
주제 질문	• 첫 발령을 받아서 첫 학급을 맡았을 때의 나의 기대와 지금 나의 기대는? • 올해 담임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 우리 학교에 가져다 놓고 싶은 물건이나 가치는? • 동학년 선생님들께 기여하고 싶은 것은? (따뜻한 차, 마사지 등) • 나의 학교 생활 만족도를 점수로 표현한다면?(1~10점) , 나의 학교 생활만족도를 1점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 학교 일로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 학생들에게 어떠한 선생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닫는 질문	• 오늘 서클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 오늘 서클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것은? • 오늘 서클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소감 질문	• 오늘 서클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 오늘 서클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것은? • 오늘 서클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Q&A 교사 공감 서클 Q&A

Q. 교사 공감 서클은 어떤 상황에 적절한가요?

A. 교사 공감 서클은 학교 공동체 안에서 교사 내면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누고,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유됨'의 경험을 통해 교사들의 공동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 학년, 동 교과 교사나 학교 전체 교사 모임, 교사 동아리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생활지도나 교수-학습 과정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 학교 행사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의 나눔, 학년 초 자기 소개하기 등이 실제적인 활용의 예입니다.

Q.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서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서클의 운영 방법은 동일하지만 참가 대상에 따라 활동이나 질문의 내용은 상이하게 구성됩니다. 교사 서클의 경우 현재 학교 상황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 하거나 교육에 대한 성찰이 담긴 이야기를 나눌 때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선생님이 너무 오래 이야기 하시는 경우, 이야기 시간이 길어져 서클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진행자는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의 묘미를 발휘해야 합니다. 서클이 진행되기 전에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사 자치 서클

교사 자치 서클은 학년, 교과, 학교와 관련되어 교사들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거나 학교 운영과 관련된 평가와 같은 전체 회의 시 사용합니다. 교사 서클을 활용하여 학년 초 담임교사들은 학년의 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거나 학년 행사 추진 등에 대한 주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동 학년 교과 담당 교사 및 동 교과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하여 서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행사 진행, 학교 운영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교사 대토론회 등에서도 서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똑똑 마음열기

■ 학년회의 풍경

ⓒ illustrate by 김보배 (2018)

콩콩 활동하기

꿈끼 학년별 발표회

- 준비물 : 토킹피스, 기록지
- 참여자 : 학년부장, 담임교사
- 시기 및 시간 : 방과 후 협의 시간
- 공간 : 구성원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
- 진행과정

① 상호연결의 체크인

- 진행자는 모임참석에 대한 환영과 시작을 알린 후 간단히 서로 연결을 위해 체크인을 한다. (참석자들이 서클에 익숙지 않아 필요할 경우 체크인/체크아웃 서클에서 예시된 서클의 원칙 소개 : 자기 진심을 말하기, 끝까지 경청하기, 토킹피스를 든 사람만 말하기, 사생활보호 등)

"현재의 내 몸과 마음의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와 그 이유는....."

② 주제 제시하기

- 학년부장이 학년별 꿈끼 발표회의 취지(의도, 욕구, 가치)를 설명한다.

"이번에 발표회의 중심 의도와 가치는 학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에 대한 즐거움 경험, 협력과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와 ◇◇놀이를 제안합니다.

③ 주제 탐구하기

- 논의주제(꿈끼 발표회)에 관련하여 돌아가며 각자의 의견과 그 의견배후의 의도, 욕구, 가치를 설명한다. (단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아닌 자신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메시지'로 말한다.)

"이번 발표회에서 저는ㅁㅁ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한 가치가 이번 행사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④ 소수자의 피드백받기

- 전체가 한번 돌아간 후에 사회자는 중요한 제안들과 그 이유나 의도, 가치를 요약하여 전체에게 전해준다. 전체의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소수자의 목소리를 검토한다.

"이번 학년별 발표회는 ㅁㅁ와 ◇◇로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 제안에는 ~~의 가치가 중요하

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혹시 다수의 의견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전체가 미처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낸 분들 중에 한 번 더 말할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그 이유나 의도가 무엇이고 무엇을 다시 제안하시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자의 의견이 제안되었을 때는, 그 의견과 그 뒤의 욕구나 가치를 확인하고 그 소수자나 전체에게 지금 나온 의견의 가치와 이미 다수의 의견으로 나온 것을 서로 살리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⑤ 협의사항 구체화하기 & 마무리하기(체크아웃)

- 선택된 최종 제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안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다른 안건이 없다면 참여 소감을 들으며 서클을 마무리 한다.
  - 다른 안건으로 넘어갈 경우

    "발표회의 내용은 정해졌고, 이제 남은 부분은 그 발표회 중 OO에 대한 준비와 누가 그것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마무리할 경우

    "오늘 모임을 마무리 하면서 자신의 느낌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은 무엇인지 돌아가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곰곰 돌아보기

교사 자치 서클의 의사결정방식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동의제'로 합니다. '동의제'는 공동체와 개인의 무게는 같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서클 운영 시 소수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수용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토론하고 협의하여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동의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누구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Q&A 교사 자치 서클 Q&A

Q. 교사 자치 서클은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학년에서 자치서클을 운영하기 적절한 시기는 학년 운영 계획 세우기나 학년 주관 행사를 추진할 때이고, 교과 교사들의 자치 서클은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한 협의를 할 때 적절합니다. 전체교사가 참여하는 자치 서클은 학교 행사 진행 협의나 학교 운영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교사 대토론회를 진행할 때가 적절합니다. 교사 자치 서클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효과적입니다.

Q. 일반적인 교사 협의회와 교사 자치 서클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서클의 평등한 의사소통 구조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의 많은 협의회가 존재하지만 교사들이 골고루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협의회의 모습은 제한적입니다. 발언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많은 교사들은 참석의 의의를 갖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발언권이 있는 서클의 구조는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클을 통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발언의 기회를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서클의 참여하는 교사는 모두 1/n의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며, 학교 일에서 주어진 일에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문헌

Ingersoll, R.(2003). Who controls teacher's wor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Kramer, P. A.(2003). The ABC's of professionalism. Kappa Delta Pi Record, 40(1), 22-25.

Noddings, N.(1989). Care and moral motiv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18(3), 234-235.

강충열 외(2013), 혁신학교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경기도교육연수원(2016),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위한 회복적생활교육 연수 자료집.

경기도교육청(2014),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경기도교육청(2016), 2016 혁신학교 추진 계획.

경기도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2016), 갈등해결 워크숍 자료집.

김미경(2015),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대화, 우리학교.

다비드 르 브루통(2014), 느리게 걷는 즐거움, 북라이프.

마셜 B. 로젠버그(2011), 비폭력대화, 한국 NVC센터.

베르나르 올리비에(2014), 쇠이유, 문턱이라는 이름의 기적, 효형출판.

방승호(2012). 기적의 모험놀이, 이지스퍼블리싱.

에듀피스(2015), 회복적 정의 생활교육 실천을 위한 가치 카드.

전국재(2015), 행복한 만남과 사귐, 시그마프레스.

정현종(2015), 섬-시인의 그림이 있는 정현종 시선집, 문학판.

최규상, 황희진(2010), 긍정력 사전, 작은 씨앗.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2016), 평화교육 TOOLKIT.

프리데리크 그로(2014), 걷기, 두발로 사유하는 철학, 책세상.

캐롤린 보이스-왓슨, 케이 프라니스 저, 이병주, 안은경 역(2018), 서클로 나아가기, 대장간.

크리스토프 라무르(2007), 걷기의 철학, 개마고원.

한국학중앙연구원(20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만든 사람들

[지도위원]

방호석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김광옥 /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현주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담당 장학관

[기획위원]

최효경 /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담당 장학사

[집필위원]

이병희 / 경기도교육연구원
민경훈 / 별가람고등학교
김유미 / 현암고등학교
이인성 / 광성드림학교
양희경 / 수지중학교
최연규 / 석천중학교
차미순 / 백신초등학교
이병주 / 신능중학교
황두신 / 목암중학교
이혜옥 / 호성중학교
피혜정 / 미사고등학교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 ver 2.0 (중등)

발 행 : 2018년 8월
발행인 : 경기도교육감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인 쇄 : 2018년 8월
인쇄처 : 다보디자인

www.goe.go.kr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 ver 2.0 (중등)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